Korean News · 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한인뉴스

9 2016

VOL. 243

haninnewsinni@gmail.com

재인도네시아한인회
www.innekorean.or.id

SAMSUNG

Galaxy S7 edge

Find beauty in the dark

[FAST AUTO FOCUS* & LOW LIGHT CAMERA**]

Focus on object quickly and accurately with dual pixel technology, or take brighter and clearer pictures in low lights with f1.7 lens technology. Our latest innovation allows you to capture beauty even in the unlikely condition.

*With Dual pixel technology.
**With f1.7 lens technology

More than a phone.

Customer service: Toll Free 0800-112-8888, Telp (021) 5699-7777 (hunting)

www.samsung.com/id | SamsungMobileIndonesia | @Samsung_ID | Samsung_ID | Samsung Indonesia

2016-2018 한국방문의해

www.koreanair.com

스케일이 다른 편안함을 경험하세요

완벽한 휴식, 비즈니스와 품격이 공존하는 하늘 위 나만의 공간–
180도 완전 평면 침대형 좌석으로 내 집같은 편안함은 물론, 40여편이 넘는 영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음악CD를 제공하는 최첨단 개인형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으로
또 다른 여행의 즐거움을 드립니다. 대한항공과 함께 최상의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출발	도착	편명	출발시간	도착시간	요일	기종
자카르타	서울	KE628	2205	0705+1	매일	77W
서울	자카르타	KE627	1520	2010	매일	77W

* 대한항공 발리–서울 노선 매일 운항

예약 및 기타 문의는 아래 대한항공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자카르타 지점 : 62–21–521–2180
www.koreanair.com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SKYTEAM

LOTTE SHOPPING AVENUE
New Shopping Paradigm

7일간의

BLACK SHOPPING DAYS

9/10 - 9/16

9월 10일 단 하루 12시 까지 연장 영업합니다!

• 최대 70% 할인 •
• 10% 추가 할인 + 10% 캑쉬백 •
• SWEET Shopping SURPRISE F&B 바우처 증정 •
• 유명 아티스트 스페셜 공연 •

황금연휴! 파격 쇼핑찬스를 놓치지 마세요

스페셜 이벤트

Korea Festival 2016.9.30~10.2

At Lotte Shopping Avenue

태권도 공연 • 태양의 후예 포토 존 • K팝 커버댄스

*스케줄은 사정에 따라 통보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스페셜 바자

UP TO 80%

백시티 전시회
(9월20일 ~ 10월3일) | GF
브랜드: 로젤, 툴레, 케이스로직, Traveller's Choice, 등

제3회 롯데 골프 대전
(8월17일 ~ 9월18일) | GF
브랜드: 테일러메이드, 아디다스, 나이키, 푸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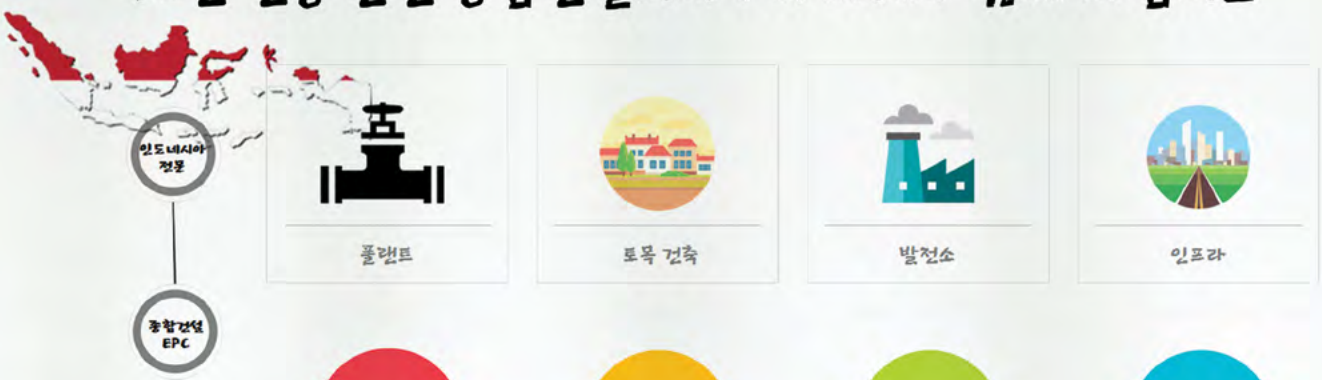
PT. SEPULUH SUMBER ANUGERAH

EPC GENERAL CONTRACTOR

국제기업들이 인정하는 Quality & Safety System을 구축
고객 만족을 위한 최고의 품질

PT. Sepuluh Sumber Anugerah는 25년전 인도네시아에 자리잡은 한인 종합건설 회사로서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B2, Grade 7 건설회사로 인정받았습니다.
토목, 건축, 플랜트, 발전소, 인프라 등 건설 관련
모든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Kawasan Modern Industri – Cikande에 규모 5헥타르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 수행
프로젝트에 필요한 모든 시스템을 하도급에 맡기지 않고 직접 수행합니다.

건설 전문가가 하면 다릅니다.
25년 전통 한인 종합건설회사 PT. SSA와 함께 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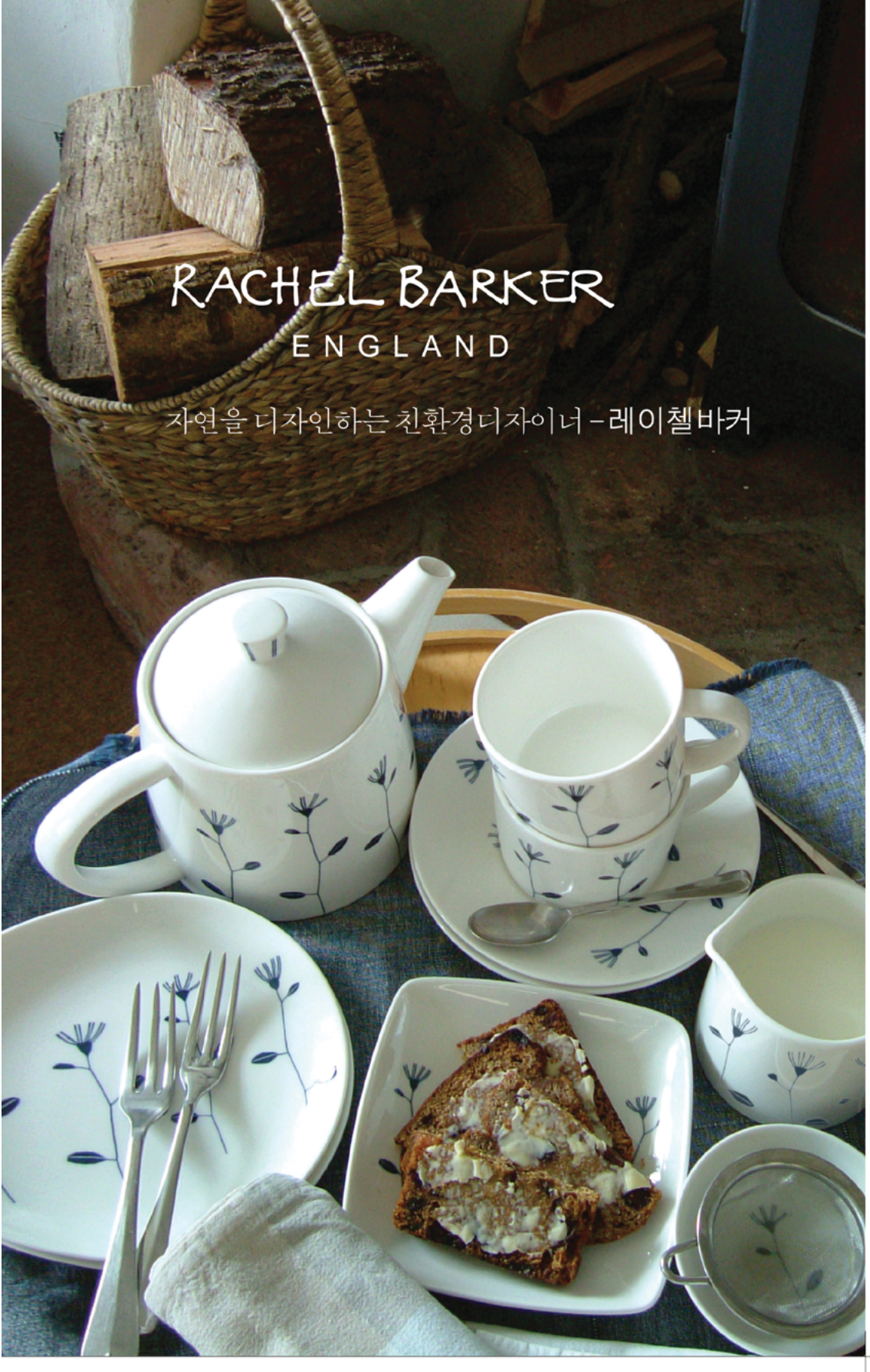


고객 행복 추구 | 신뢰 협력 | 가치 창출 | 경쟁력 전문가

www.pt-ssa.co.id

HEAD OFFICE:
Gedung EQUITY Tower 22A, SCBD Jakarta
021-5140-2833

WORKSHOP:
Jl. Raya Jakarta Serang, Kawasan Modern Industri Kav. 6
0254-4029-47~49



메도우플라워 미니티포트
/홈세트

코발트블루 젠쿡(중)

메도우플라워
젠쿡 (중)/곰솥(중)

메도우플라워 생생용기 3.6L
/잉글리쉬가든 생생용기 5.7L

치커리
원형 생생용기 5.4L

SAINT JAMES **Showroom**

Pondok Indah Mall
Jl.Metro Pondok Indah Blok 3B
2 floor unit 219, Jakarta Selatan
Tlp.021-75920615

Lotte Shopping Avenue
Jl. Prof Dr Satrio Kav 3-5 2F floor
unit 36 Karet Kunigan,Jakarta 12940
Tlp.021-2988 9215

Lippo Mall Kemang
Kemang Village L2-18 Lt2 36P
Antasari, Jakarta
Tlp.021-2952 8530

Lippo Mall Puri
Jl. Puri Indah raya 11610
Unit No. LG-90
Tlp.021-2911 1197

고객문의 : 021-3190-6949

www.saintjames.com

발행처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발행인 : 양영연
편집인 : 강희중
논설위원 : 김문환
편집장 : 홍석영
편집위원 : 신돈철, 최인실, 황미리,황윤홍
취재기자 : 전민규
전 화 : (021) 521-2515, 527-2054
팩 스 : (021) 526-8444
주 소 :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이메일 : haninnewsinni@gmail.com
웹사이트 (http://www.innekorean.or.id)
에서 한인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인뉴스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호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 화 : 021-521-2515

한인뉴스발행인 양영연 배상

누구는 헝그리 정신이 필요하다고 하고
누구는 돈이 없으면 성장을 못 한다고 했습니다.
이 두 상반된 명제가 함께하는 스포츠의 세계.
작은 차이로 승부를 가르는 그 곳에서 외부환경을 고려한 한 단계 높은 훈련의 결실을 맺은 양궁이 빛을 발했습니다.
어쩌면 크고 작은 라켓을 향해 매일 활을 쏘고 있는 우리네도 그런 내공을 필요로 하며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으니
스포츠를 인생에 비유하는 것이 무리가 아닌 듯합니다.

haninnewsinni@gmail.com
08187111246
편집장 홍석영

contents

2016. 9. 통권 243호

2016 9

이 달의 읽을거리

차 례

10 편지위원 칼럼 <황미리>

12 이선진 전대사의 대사일기

16 한인뉴스 창간 20주년 기념행사

21 최진열의 경제를 말하다

23 공감, 인도네시아 <김성월>

24 집중! 이사람/ 배동선, 노은주, 김성월

26 차례상을 차릴 때 주의하세요

32 차근 차근 내 꿈을 준비해보자 <최우호>

38 사무실, 집 이사도 스마트하게 / 박상훈 칼럼

41 2016년 8월 월간 경제 브리핑 <자카르타 경제신문>

44 나를 찾아가는 시간 <김태근>

46 지상갤러리 <권미선>

48 문화재가 된 태극기 <송명호>

50 행복에세이 <김현숙>

53 이 표현이 맞나요? <최서혜>

56 김종성의 생활법률 / 그것이 궁금하다

58 인도네시아 민법 (8) <이승민>

61 올림픽 뒷이야기

64 해외건설현장 연수단 자카르타 방문기 <박도현>

69 생활정보

내 고향 추석에는...

디자이너 : Diki Satria Nugraha [@dqdoodle]

편집위원 칼럼

박인비의 용기

글: 황미리 편집위원

대한민국은 한민족이다.

사전적 의미로 이야기하자면 "반만년 동안 혈연적 동일성을 지니고 있는 단일민족" 이라는 뜻이다. 물론 문명이 발달되고 세계화에 따른 개방이 더 이상 대한민국은 혈연적인 한민족으로 묶기에는 힘들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종종 전세계 사람들이 놀랄만한 한민족의 기개를 보여주곤 한다. 모든 국민이 어렵던 시절, 손에 가락지를 빼 국가에 도움이 되겠다고 금을 모을 때 전세계는 진정한 의미의 한민족이 무엇인지 보고 감동했다. 이때부터 였을까 한민족은 "혈연적" 이라는 딱딱한 의미보다는 "하나된 민족" 라는 의미로 쓰여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21세기부터 우리는 세계적인 스포츠 대회가 열릴 때마다 흩어져있던 한민족의 열정을 한데 모아 보여주곤 했다.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대한민국 붉은 악마는 전세계 곳곳에서 한민족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었고 이후 세계적인 스포츠 대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한민족임을 증명하고 있다.

2016년 리우 올림픽이라고 다르지 않았다. 경기 시간대가 일상생활 시간대와 잘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올림픽에 귀추를 세우며 지속적인 응원과 관심을 보냈다. 그래서일까 세계 면적 109위인 대한민국, 세계 경제 순위 11위인 대한민국이 올림픽에서는 종합 8위를 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예상보다 부진하다 라던지 가타부타 이야기가 많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순위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참 잘했다. 이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금메달 9개, 은메달 3개, 동메달 9개로 총 21개의 메달을 획득하였다.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톱 10의 국가들을 보면 1위 미국, 2위 영국, 3위 중국, 4위 러시아, 5위 독일, 6위 일본, 7위 프랑스, 9위 이탈리아, 그리고 10위에 호주가 있다. 물론 대한민국은 분명 1위라도 할 수 있는 나라이지만 객관적으로 여러가지 정황상 전세계 8위라니 정말 잘하지 않았는가.

금메달은 태권도 2개, 사격 1개, 펜싱 1개, 양궁 4개 그리고 골프에서 1개를 취득했다. 다시 말하면 이 종목들에서 우리는 명실공히 전세계 1위인 것이다. 비단 금메달뿐 아니라 은메달, 동메달 그리고 메달을 획득하진 못했지만 우리를 대표하여 나가 전세계를 무대로 삼고 열심히 달려준 우리 선수들은 모두 자랑스럽다. 근대 올림픽 창시자 피에르 드 쿠베르탱(Pierre de Coubertin)은 "올림픽 대회의 의의는 승리가 아닌 참가하는데 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닌 노력이다" 라고 이야기 했다. 때문에 메달 여부에 상관없이 올림픽 출전 선수들은 모두 하나같이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대한민국 선수들 중 강인한 정신력을 보여줘 전 세계에 있는 한민족에게 감동의 눈물을 선사한 사람은 바로 골프 여신 박인비다. 골프는 116년만에 올림픽 게임 중 한 종목으로 채택되었다. 박인비는 대한민국 골프 올림픽 출전권 4개를 두고 슬럼프에 빠져 부진의 연속이었던 그가 그 중 한 개의 출전권을 부여받는 것이 맞느냐 안맞느냐 라는 여론부터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질타, 그리고 악플들로 올림픽 시작 전부터 힘들어했다.

2008년 US오픈 최연소 우승을 시작으로 메이저대회 7승, 통산 17승을 하고 전세계 랭킹 1위를 기록하면서 박인비는 2016년에 최연소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다. 이렇게 승승장구 할 때 많은 팬들은 환호성을 보냈지만 예선탈락, 통증으로 인한 경기 중도포기 등 박인비가 선수로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줬을 때 팬심은 무서운 활이 되어 돌아왔었다. 후배들에게 출전권을 양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질타부터 수없이 이어지는 악플들이 박인비는 실제 부상의 고통보다 고통스러웠다고 회고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녀는 '골든 커리어 그랜드 슬램' 이라는 실로 역사에 남을 만한 결과를 이뤄냈고 그녀의 경기를 눈물로 지켜본 한민족은 밤을 지새웠다.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점은 그녀의 평정심이다. 실제로 박인비는 침묵의 암살자, 평정심의 여왕으로 불리운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화가 날 때나 초초할 때나 버디가 성공했을 때나 공이 벙커에 빠졌을 때나 그녀의 표정엔 감정기복이 감지되지 않는다. 다만 경기 마지막에 금메달이 확정되는 골드샷이 끝나자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보여줬을 뿐이다.

올림픽 경기 내내 우리가 볼 수 있었던 박인비의 표정은 단지 일관된 무표정이었다. 그리고 금메달이 확정되었을 때에도 감독을 맡았던 박세리는 울음을 터뜨렸으나 박인비는 또다시 감정을 추스리고 잘 나타내지 않았다. 단지 인터뷰에 응하면서 "나는 한계에 도전한다는 생각으로 출전했다." "올림픽 정신에 맞게 겸허한 자세를 유지한 것이 좋은 성적을 가져왔다." 라고 차분히 말할 뿐이었다.

올림픽 경기들을 관람하면서 느낀 것은 해설을 하는 위원들이나 응원을 하는 국민 대다수들은 이 선수가 금메달이 예상되는 우수한 선수라며 신나하다가 결국 예상대로 되지 않으면 굉장히 실망하면서 안타깝다고 한다. 단체 구기종목 경기를 관람 할 때면 모든 국민들이 감독이자 코치가 되어 저렇게 하면 안된다~ 이렇게 해야 맞다~저럴 줄 알았다~ 등의 이야기를 쏟아낸다.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은 한평생 운동을 한 전문가들이다. 그리고 오직 올림픽을 위해 4년을 바라보고 달려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한민족의 기개를 펼치며 온 마음과 목청껏 응원을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지만 선수들을 판단하고 기를 꺽기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다만 한민족을 대표해 나간 선수들을 바라보며 메달에 상관없이 참 잘했다고 수고 많았다고 해주는 것이 가장 올바른 응원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금메달 10개의 목표에 살짝 못 미쳤지만 처음에 말했든 2016년 올림픽을 정말 잘 치렀다.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고국으로 돌아온 선수들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인터뷰에서 벌써 앞으로의 4년을 이야기 한다. 일본올림픽에서는 더 잘하겠노라고 말이다. 그동안 우리는 하계 올림픽과 월드컵과 일상생활에 집중하며 그들을 잊을 것이다. 그리고 4년 후 다시 마치 어제 봤던 것처럼 그들을 응원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올림픽 그 한순간을 위해 4년을 하루처럼 달려오는 대표선수단들의 노력과 땀일 것이다. 그리고 박인비를 비롯해 선수들의 인내를 배워 우리 인생의 올림픽에서도 잘 싸워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해 본다.

2016년 리우 올림픽의 대한민국은 참 잘했다!

대사의 일기 제15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입후보"

2006년은 한국 외교에 영원히 기억되어야 할 해이다. 그 해 반기문 당시 외교부 장관이 UN 사무총장 후보 경선에 참여하여 선출되었다. 또한, 그보다는 중요성이 다소 떨어지지만 한국의 UN 안전보장이사회 진출 여부가 결정되는 해이기도 하다. 한국은 1991년 유엔 가입한 후 1996/7년 처음으로 2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이 된 후 10년 만에 다시 도전하는 것이며, 경쟁상대는 인도네시아이다.

한마디로, 한국은 유엔 사무총장(이하 '총장') 자리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이하 '안보리') 진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고 있었다. 인도네시아 부임하기 전 나는 외교부 외교정책실장으로 유엔관련 업무는 나의 소관이다. 따라서 한국이 안보리에 진출하기로 결정하고 득표공작을 진행할 때 실무책임자는 나였다. 그러나 반 장관이 총장에 입후보하기로 결정한 것은 내가 외교정책실장을 그만두고 인도네시아로 부임한 이후이다.

두 마리 토끼를 쫓느냐, 아니면 '이사국' 진출 노력을 포기하느냐하는 문제를 두고 우리 정부 내에서 격론을 벌이고 있을 때 나는 인도네시아 주재하면서 '이사국' 진출은 인도네시아에 양보하고, '총장' 선출에만 전념할 것을 건의하였다. 본부에서 '이사국' 진출을 추진하던 내가 인도네시아 대사로 부임한 이후에는 안보리 진출을 포기하자고 주장하였으니 한 입으로 두 말을 한 셈이다. 나의 변절(?)이유는 후술하겠다.

어쨌든 2006년은 대사 부임 2년 차로서 유도요노 대통령 (SBY)의 한국 방문 문제를 두고 연전연패 (제3화)하는 한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후보문제를 두고 어지간히 골머리를 썩이던 해이기도 하다.

'총장'과 '안보리' 선출 절차

여기에서, 사무총장의 선출 과정과, 안보리 이사국 선출 절차에 관한 설명부터 해야 할 것 같다.

'총장' 은 관례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아프리카, 서구유럽, 동구유럽, 중남미 등 5개의 대륙 그룹이 돌아가면서 선출된다. 따라서 아프리카 출신 '코피 아난' 사무총장 임기가 2006년 끝나면 다음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차례이다. 5년 임기이지만 통상 연임을 하는 만큼 한번 선출되면 10년이고, 대륙 별로 돌아가는 만큼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아시아 지역은 50년 후에야 기회가 온다.

아시아 지역 출신 총장은 1961-71년 버마 (현 미얀마) 사람 '우 탄트' 가 유일하다.

'총장' 선출은 유엔 안보리가 최종 후보 1명을 선정, 유엔 총회에 추천하여 확정한다. 그러나 총회의 승인은 형식적이고 안보리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사무총장 후보는 5 개 안보리 常任이사국(미국, 영국, 불란서, 러시아, 중국)과 10개 非常任이사국 총 15 개국 이사국 중에서 최다 득표자가 최종 선출된다. 단,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나라의 반대가 있으면 탈락된다. 그만큼 안보리의 권한이 막강하고, 그 중에서도 5개 상임이사국 (소위 P-5)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안보리는 2006.7 후보들에 대한 심사를 처음 시작하여 10월 경 최종 결정, 유엔 총회에 추천한다.

한국은 2006.2 반 장관의 후보 선언을 공식 발표하였다. 이보다 훨씬 앞서 태국 탁신 총리는 2004년부터 현직 외교부 장관을 후보로 선언하여 선점효과를 노리는 한편, 아세안 10 개국을 등에 업고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었다. 그 외 인도를 포함하여 다수의 후보들이 난립하였으나 한국과 태국 후보가 가장 유력시되었고 인도 후보도 막판 추격을 맹렬히 하였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安保理)는 유엔의 핵심기구로서 세계 주요정치 현안들이 논의되고 정치, 군사, 경제적 재제 결정에 중심적 위치에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 마다 유엔 차원의 재제의 수위를 결정하는 곳도 안보리이다. 안보리 15 개국 중 거부권을 가진 5대 상임이사국은 바뀌지 않으나, 비상임 이사국 10 개국은 2년마다 새롭게 선출된다.

비상임이사국의 선출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대륙별로 두 자리(나라)가 배정되어 있다. 아시아 지역 전체에 두 자리가 배정되어 있지만 관례적으로 중동 지역에 한 자리를 배정하고 나머지 한 자리를 두고 중동을 제외한 수십 개 국이 경쟁한다. 한국, 일본, 인도, 아세안 10 개국 모두가 이 그룹에 속한다. 그러나 일본은 경제력을 앞세워 이제까지 비상임이사국 경쟁에서 실패한 적이 없다. 다만, 연임을 금지하는 유엔 규정에 따라 한 번씩 걸러(2년 쉬고)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이 나서는 해를 제외하고, 또한 인도 등 영향력 있는 나라를 피하여 출사표를 던져야 가능성이 있다. 출사표를 던지기로 결정한 후에도 오랜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무한한 인내력과 창의력을 필요로 한다.

2007 Secretary-General candidates[15]

	Name	Position
	Ban Ki-moon	South Korean foreign minister
	Shashi Tharoor	Under-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for public information; from India
	Vaira Vīķe-Freiberga	President of Latvia
	Ashraf Ghani	Chancellor of Kabul University, Afghanistan
	Surakiart Sathirathai	Deputy prime minister of Thailand
	Prince Zeid bin Ra'ad	Jordan's ambassador to the United Nations
	Jayantha Dhanapala	Former Under-Secretary-General for disarmament; from Sri Lanka

아세안 10 개국은 순번에 따라 안보리 진출 순번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안보리 진출을 결정할 때 인도네시아와 경합할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 즈음 한국의 경제규모 (GDP)가 아세안 10 개국을 모두 합한 것과 비슷할 정도로 한국 위상이 높아 있었다. 나를 포함 UN 담당 외교 실무선은 아세안과 인도네시아의 국제적 위상에 관하여 무지하였다.

더욱이, 한국은 2004년부터 여러 나라와 유엔 내 주요 자리를 놓고 표를 주고받는 (예로, '인권위' 선출 시에는 한국이 A 나라를 지지하고 안보리 선출 시에는 A 나라가 한국 지지키로 약속) 득표 활동을 해왔다. 이러한 득표 활동은 국제적 관행이지만, 한국은 1970, 80년대 남북한 유엔 대결 외교를 벌일 때부터 많은 경험과 기술 (know-how)을 쌓았다. 따라서 내가 인도네시아를 부임할 시점에서 비교하면 한국의 지지표는 인도네시아를 훨씬 앞서 있었다.

본부 전략에 이견 (異見)

그러나 나는 인도네시아에 부임한 이후 2006.2 본부 공관장 회의 들어가기 전까지 유엔 관련 업무를 거의 다루지 않았다. 우리 정부 내에서 반 장관의 후보 선언 시점을 놓고 저울질 하고 있는 마당에 내가 나설 계제도 아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꺼내면 한국이 두 마리 토끼를 쫓는다고 압박을 할 것이 분명하고 이를 서울에 보고하여도 본부 대책수립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인도네시아 내 유엔 동향에 관하여 반 장관에게만 비공식 채널을 통하여 몇 차례 보고하였을 뿐이다.

가끔 들리는 본부 소식은 두 가지 목표를 계속 추구하되, '총장' 대책은 15 개 안보리 이사국에 한정하여 외교력을 집중하고, 태국 후보가 속해 있는 아세안에 대해서는 無對應으로 일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는 극히 단편적이고 제한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 본부 방침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국내외 정세들을 판단하여 내린 결정을 인도네시아 현지 시각만으로 왈가불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본부에 대하여 불만을 표하지 않았으나 나의 일기에는 이렇게 적고 있다. "유엔 사무총장 후보의 경쟁은 그 직위와 걸맞게 세계적 관심과 존경을 받는 가운데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적 지지 속에서 한국 외교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한 성격의 정책사안을 몇 사람 전문가의 손에 의하여 처리되거나, 소수 몇 나라에 국한하여 득표 활동을 하는 것은 옳은 방식이 아니다." 경쟁에 이겨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밀주의 외교 행태에 동의하고 싶지 않았다.

그 해 2월 공관장 회의 일정표에 의하면, 전 공관장들이 참석하는 첫날 전체회의에서 '총장' 대책이 의제로 채택되어 40 분이 배정되어 있다. 나는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한 아세안의 동향과 한국의 대응 방향에 관하여 발언할 생각으로 준비하였다. 그러나 회의가 전혀 예상 밖으로 진행되었다. 본부 전략에 관한 설명만 있고 토론 시간을 아예 할애하지 않았다. 이 날 발표된 전략이란, 첫째 두 마리 토끼를 끝까지 추구한다. 둘째, 해외 공관은 '총장' 에 관해서는 본부 지시가 없는 한 활동을 하지 말고 '안보리' 득표활동만 전념해 달라는 주문이다. '총장' 관련 철저히 비밀주의로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아세안 대책회의를 요청하다

그래서 아세안 주재 대사들이 장관을 모시고 '총장' 문제를 토론할 수 있는 별도 모임을 가질 것을 건의하였다. 장관이 이에 동의하여 다음 날 40 분 예정으로 모임이 열렸다. 여기에는 장관, 차관 및 UN 담당 간부들이 참여하여 대 논쟁이 벌어졌다.

40 분 예정 시간을 30 분 더 초과할 정도로 열띤 논쟁이 있었다. 외교부 생활 30 여년 만에 외교부 직원들이 이렇게 진지하고 열띤 논쟁을 벌이는 장면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유엔 담당 부서의 주장은, 국제무대에서 아세안과 인도네시아의 영향력이 얼마나 되겠느냐, 영향력을 과대평가할 필요가 없다. 사무총장 선출과 안보리 진출 두 가지 문제를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다, 다만 아세안과 인도네시아의 입장을 고려하여 아세안은 철저히 비켜 갈 테니 아세안 주재 우리 대사들이 참아달라는 등의 발언과 주문이 있었다.

나는 안보리를 쉽게 포기하는 것에 반대하지만, 안보리 진출에 집착하여 사무총장 캠페인에 실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고 주문하면서 본부 방침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첫째, 우리가 비켜간다고 아세안도 우리를 피해 주겠느냐. 당시 4월로 논의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방한하고, 그 해 7월 아세안 주도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와 아세안/대화상대국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이 자리에서 인도네시아와 아세안 국가들이 제기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태국 '총장' 후보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나라들마저 한국이 두 마리 토끼를 독차지하는 것은 심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아세안 회원국들로부터 벌써 나오기 시작하였다.

둘째, 인도네시아의 외교적 역량과 영향력을 재검토해야 한다. 수하르트 몰락과 함께 쇠락하던 인도네시아 외교력이 2004.10 SBY 신정부 취임 이후 살아나고 있다.

최초의 민선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업고, 30 여년 걸린 '아체' 반군과의 평화협정을 타결하여 미국과 서구와의 관계가 크게 개선되었다. 이에 추가하여 아· 아 비동맹 반둥회의 50주년 회의 개최(2005년), 이슬람 종교적 유대를 토대로 중동과의 관계 개선 등 인도네시아의 국제적 이미지가 급상승하고 있다.

특히, 이 나라가 아세안 내 맹주 역할을 다시 되찾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 2005년도 있었던 두 가지 구체적 실례를 들었다. 하나는, 아세안이 일본을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추대하려는 결의안을 인도네시아가 저지하였다. UN 개혁방안 중 하나인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 문제를 두고 일본의 집요한 로비로 아세안 9 개국이 동 결의안을 채택하려고 하였으나 인도네시아의 반대로 일본의 계획을 좌절시켰다. 또한, 2005년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설립방안을 두고,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9개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호주, 인도, 뉴질랜드를 EAS 창설멤버에 포함시켰다. 아세안 9 개국은 아세안에 한. 중. 일을 추가한 13개국으로 EAS를 발족하자는 안을 지지하였으나 인도네시아가 고집하여 결국 호, 인, 뉴를 추가하여 16 개국 방안이 채택되었다.

셋째, '안보리' 문제를 두고 인도네시아와 끝까지 경쟁한다면, 인도네시아가 '총장' 문제를 두고 한국에게 어떠한 태클을 걸어올지 모른다. 아세안 10 개국을 단합하여 태국 후보를 적극적으로 밀거나, 만약 태국 후보가 약체라고 판단되면 싱가포르 후보를 미는 등 인도네시아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많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나는 장래의 한국. 아세안 관계가 염려스럽다고 말하였다. 한국이 아세안의 중심세력인 인도네시아('안보리' 경쟁), 태국('총장' 경쟁)을 누르고 독식하는 경우 한국에 대한 아세안의 적대감정을 유발하고 그 외교적 여파는 굉장히 오래 갈 것이다.

한인뉴스가 창간 20돌을 맞았다

좌로부터 감사패 수상 김문환 논설위원, 이승민 변호사, 서미숙작가, 양영연회장, 공로패수상 조규철 고문, 감사패 수상 사공경원장, 허영순

8월15일, 로얄 자카르타 골프장에서 한인회 관계자 외 한인사회 각 단체장과 한인뉴스광고후원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인뉴스 창간 2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에서 광복절 기념식을 마친 후, 장소를 옮겨 1부 행사로 '2016 한인회 임원골프대회' 를 열어 한인회 임원들 간의 친목을 다졌다. 한인회청년분과의 주도적인 행사 준비로 100여명이 넘는 한인회 임원진들과 한인뉴스 초청인사들로 성황을 이루었다.

골프 행사가 끝난 후 홍석영 편집장의 사회로 창간 20주년 기념행사의 막이 올랐다.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의 소식을 전해주는 한인뉴스는 어느새 20살 믿음직한 성인으로 성장했다. 올해로 창간 20주년이 되는 한인뉴스는 1996년 7월 15일 창간하여 매월 3,500부 발행, 10일경 어김없이 동포사회의 크고 작은 소식을 알려주는 등불이 되어줬다. 2016년 8월호 242호가 발행되기까지 단 한 번의 결호도 없이 정확하고 알찬 기사로 교포들의 궁금증을 풀어준 한인뉴스는 이제 한인사회 안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잡지로 자리매김했다.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대표 언론으로서 지난 20년간 한인들의 소통을 이끌며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했다. 일반인 기자들의 다양한 기사 제공으로 동포 사회의 이모저모를 소개했고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주요뉴스, 한인사회의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칼럼, 실생활에 필요한 인도네시아어 강좌, 수필,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는 탐방 칼럼 등 다양한 내용으로 이어져 왔다.

발행인 양영연 한인회 회장은 "앞으로도 우리 한인뉴스는 더욱 다양화된 컨텐츠와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단계적으로 발행부수를 증가함으로써 구독 기회를 늘릴 계획이다. 또한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E-Magazine을 확대하여 한인뉴스의 글로벌화에 힘쓰고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의 위상을 제고할 것이다" 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외국에서 우리말로 우리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소통의 장인 잡지가 있다는 것은 가슴 뿌듯한 일이다. 본격적인 디지털시대로 접어들어 많은 것이 변하였지만 처음 창간호를 찍어내던 그 때 그 마음만큼은 잊지 않고 노력하고 있다" 며

한달 한달 한인뉴스를 채워주셨던 집필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했다.

조태영 주인도네시아 대사는 “다양한 읽을 거리로 재미와 유익을 주는 한인뉴스가 계속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축사하였다.

마지막으로 12년간 한인뉴스 편집인으로 한인사회 성장에 공헌한 조규철 전 편집인은 “그동안 한인뉴스와 함께해 준 발행인을 비롯해 기고자여러분들과 전편집인, 전 편집위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도 더 사랑받는 한인뉴스가 되길 바란다”고 공로패 수상의 소감을 전했다.

20년을 한인뉴스에 ‘인도네시아법률해설’을 집필한 이승민 변호사, 한인사회의 역사 및 인도네시아의 시사 등의 칼럼을 써 온 김문환 논설위원, ‘드라마로 배우는 바하사’의 허영순, ‘신성철 칼럼’의 데일리인도네시아 신성철대표, ‘행복에세이’의 서미숙 문협회장, ‘잘란 잘란 인도네시아’의 사공경 한*인니 문화연구원장 등의 장기기고자에게 감사패를 증정하며 즐거운 만찬 시간과 함께 푸짐한 잔치의 한마당을 펼쳤다.

한인뉴스는 2012년 세계한인회보 콘테스트에서 편집실의 정성이 돋보이는 회보라는 평가를 받으며 컨텐츠대상을 수상한바 있다.

위: 강희중편집인/좌로부터 홍석영 편집장, 한인뉴스 편집위원 최인실, 황미리, 황윤홍, 김문환논설위원, 신돈철 편집위원

8월15일에 열린 2016 한인회임원 골프대회 이모저모

인도네시아 반둥 한인회
대전광역시자원봉사센터와 문화교류 MOU

인도네시아 반둥 한인회(회장 엄정호, PT. ING INTERNATIONAL 사장)는 8월 7일 인도네시아 반둥 한인회 사무실에서 대전광역시자원봉사지원센터(이민표 센터장)와 해외 자원봉사 활동 및 문화교류 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엄정호 인도네시아 반둥 한인회장은 제4기 해외봉사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 4월 7일 대전광역시자원봉사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사전·사후에 대한 준비·활동 등 전반적인 과정을 함께 협의하며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았으며, 이날 반둥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나눔의 봉사에 따른 감사패를 대전광역시 자원봉사지원센터에 전달했다

이민표 대전광역시자원봉사지원센터장은 반둥 한인회 한사모를 위해 우리나라 전통 한복 30벌을 전달했으며, 글로벌 2016 나눔 희망 프로젝트 운영지원에 따른 감사패를 한인회에 전달했다.

이날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상호 협력하에 국제교류사업 해외봉사활동과 대전광역시와의 교류 등을 통해 인도네시아 반둥 소외계층을 위한 해외봉사활동 사업을 체계적으로 확산, 한인회와 대전광역시가 함께 사회적으로 취약한 마을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고자 힘을 모았다.

총 21명으로 구성된 제4기 대전시 해외자원봉사단은 8월 4일부터 14일까지 인도네시아 반둥 깜풍 찌와루 마을에서 마을 공동체시설 조성 마무리 작업(운동장 등), 마을 도서관 보수공사, 어르신 돋보기 지원, 마을이정표 설치, 보도블럭 공사, 이미용, 방역, 한국음식 나누기 등 마을 환경개선, 재능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광복절 기념 행사

15일,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대사 조태영)은 대사관 1층 강당에서 광복 71주년 기념행사를 가지며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대사관,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등 150여명이 참석하여 순국선열의 헌신을 기리고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기념식은 개회사, 국민의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조태영대사의 박근혜 대통령 경축사 대독, 광복절 노래 제창과 배상경 한인회 명예고문의 만세삼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 수여식 등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조태영대사가 대독한 경축사를 통해 "진정한 광복은 8천만 민족 모두가 자유와 인권을 누리며, 더 이상 이산의 아픔과 고통이 없는 통일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 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한반도에서 핵과 미사일, 전쟁의 공포를 걷어내야만 한다" 고 강조했다.

양영연 한인회장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반도가 통일을 위해 갈 길이 아직 멀다" 며 "이제 우리 자손들이 통일의 염원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자" 고 말했다. 또한 "교민들의 신변 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요하며 북한식당의 출입을 자제해 달라" 고 당부했다.

조태영대사와 전민식동남아 남부협의회회장

양용현영사

홍범표대표

최진열의
경제를 말한다

임박한 미국 금리인상, 이번에도 신흥국엔 독 될까?

글: 최진열 부장(KEB 하나은행)

옐런 미국 연준 의장이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함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옐런 의장이 현지시각 지난 8월 26일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열린 한 경제정책회의에서 "견고한 고용시장 및 미국 경제전망 개선을 감안시 금리인상 여건이 지난 수개월간 강화됐다" 고 발언한데 이어, 스탠리 피셔 부의장 역시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옐런 의장의 발언이 9월 금리인상 및 올해 두 번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이른바 "옐런 서프라이즈" 직후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주요국 통화는 달러화에 대해 약세 전환되었고, 신흥국을 중심으로 주식시장 역시 약세 흐름을 보였다. 미국 금리인상이 달러화 강세 → 달러 표시 자산 가치 상승 → 달러 표시 자산 수요 확대 → 글로벌 투자 자본의 미국 환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흥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1990년대 이후 두 차례의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1994년 1월부터 1995년 2월에 걸쳐 금리를 3.0%에서 6.0%로 인상했고, 이는 중남미 국가의 채권가격 폭락 및 외환위기를 불러온데 이어 1997년 한국,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시아 5개국 외환위기의 단초가 되었다. 2004년 5월 시작된 금리인상은 2년에 걸쳐 4.25%p의 인상 폭을 기록했다. 금리 인상 이전 사상 초유의 저금리 기조를 바탕으로 서브프라임 및 신용파생상품으로 급팽창되었던 미국 모기지론 시장은 금리인상과 함께 급격히 붕괴되며 2008년 이른바 "서브프라임 사태" 로 지칭되는 글로벌 금융위기로까지 확대된 바 있다.

미국 금리인상을 앞두고 신흥국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는 것은 과거 경험한 "테이퍼 텐트럼(Taper Tantrum)" 의 영향이 크다. 테이퍼 텐트럼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를 의미하는 "테이퍼링(Tapering)" 과 발작을 뜻하는 의학용어인 "텐트럼(tantrum)" 을 합성한 용어로서, 2013년 5월 당시 미국 연준 버냉키 의장의 양적완화 출구전략 발언에 따른 신흥국 경제 충격을 빗댄 표현이다. 양적완화 축소 발표 이후 신흥국 채권 및

통화가치가 동반 폭락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이 일대 혼란에 빠졌고, 당시 인도네시아는 브라질, 인도, 터키, 남아공과 함께 적정 외환보유액 미보유 평가를 이유로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 5개국(Fragile Five)" 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3년이 지난 현재, 2016년 글로벌 경제, 특히 아시아 신흥국의 경제 여건이 2013년과 비교해 크게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연초부터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 원자재 가격 하락, 국가간 통화 전쟁이라는 이른바 3C 리스크(China Growth, Crude oil, Currency war) 극복을 위해 고군분투해 왔다. 미국 금리인상이 과거 양적완화 축소와는 달리 유동성 확대폭 축소가 아닌 유동성의 순회수를 의미한다는 점도 2013년 대비 악화된 여건이라 볼 수 있다.

신흥국 중 미국 금리인상에 특히 취약한 국가, 이른바 "신(新) 취약 5개국" 에 대한 예측은 분석기관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다. 터키, 남아공, 브라질, 남아공 등이 자주 언급되는 가운데, 분석기관에 따라서는 인도네시아를 고위험 국가로 분류하기도 한다. 다만, 인도네시아가 신 정부 출범 이후 정치안정 및 정책효과로 인해 경기회복 모멘텀을 회복 중이고 전반적인 국가 리스크 역시 개선 추세란 점은 대체적인 평가인 듯 하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최근 국가별 리스크에 대한 자체 평가를 통해 인도네시아 국가 리스크 순위를 평가대상국 중 26위(2013년) → 20위(2014년) → 12위(2015년)으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2013년 신흥국 중 금융리스크가 가장 빠르게 악화된 국가 중 하나로 지목된 바 있으나, 이번에는 다를 수 있다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재외동포와 함께 하는 <KBS 전국노래자랑> 세계대회

세계 한인의 날 10주년을 기념해 내국민과 전 세계의 재외동포가 함께 하는 'KBS 전국노래자랑' 본선을 앞두고 8월 13일, 롯데 쇼핑 에비뉴에서 인도네시아지역 예선전이 치러졌다.

예선전 행사는 개인과 듀엣, 총 19개 신청하여 13개팀이 참가했다.

본선에 진출하게 된다면 송해 할아버지와 꼭 춤을 추어보고 싶다는 유아름양의 무대로 시작된 이번 예선전은 외국계 회사를 다니다 보니 한국사람이 그리워 참가하게 되었다는 회사원, 말썽만 부리던 학창시절에 죄스러워 이제부터라도 효도를 하겠다고 엄마를 위해 노래를 불러 주는 아들, 대학 4학년이 되기 전에 맘껏 놀고 싶었다던 유학생, 같은 동네에 사는 절친과 참가한 발랄한 고등학생 등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참가하였다.

심사 결과 젊은 날에 가수가 되고 싶었다던 임연식씨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전유은 씨가 장려상을, 노련한 무대를 선보인 이영실 씨가 우수상 메달을 수상했다. 또한 박수부대를 이끌고 와서 분위기를 달궈주던 이춘이 씨가 최우수상을 받아 한국에서 열리는 본선무대의 출전자격을 얻게 됐다.

최우수상을 받은 이춘이씨는 "교통사고 후 굉장히 침울해 있었는데 이렇게 즐거운 일이 생기니 너무 행복하다" 며 일본에서 신청해 준 딸에게 감사하다며 울먹였다.

본선 무대는 오는 9월 초순 한국에서 열리며, 9월 18일 일요일, 12시 10분 90분간 방영될 예정이다.

전국노래자랑 제작진이 직접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현지 예심을 진행했고, 수상자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본선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노래와 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재외동포의 삶의 애환과 사연을 통하여 감동의 이야기가 함께 어우러진 따뜻하고 의미 있는 무대가 될 것이다.

햅쌀이로다. 햅쌀!

작품사이즈 : 100cm x 90cm

Citagelar Sukabumi Jawa Barat

햅쌀은 밥만 먹어도 맛있다.
밥에서 윤기도 좌르르 흐르고 말이지!

그들이 사는 곳은 깊은 산속이다.
산 중턱 계곡에 호수를 연결하여 받은 물로 주민들은 생활용수로 사용한다.
소규모수력발전소를 가동하며 마을자체에서 방송국을 운영하므로 주민들은 TV를 시청할 수 있다. 이 모든 일은 밤마다 족장이 무엇(?)인가를 개발하고 있다. 때문에 족장의 기상시간은 매일 오후 2-4시이며 손님 접견시간은 항상 오후다.

축복 받은 땅에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이삼 모작의 벼농사를 수확한다. 하지만 조상들의 관습법을 따라 일 년에 일모작만 고집하는 까서뿌한부족이 있다.
'대지를 어머니처럼' 공경해야 한다. '어머니가 일 년에 출산을 한 번하듯이 논에서 일모작만' 하고 휴식과 영양을 줘야한다.

추수한 곡식들, 아낙네들은 벼이삭을 통째로 절구통에 넣고 찧다가 키질 한 후 한 번 더 절구통에 넣고 찧으면 쌀이 된다. 그 햅쌀로 여러 가지 떡과 음식을 차려 놓고 '스런따훈'을 즐기는데 우리의 '추석' 과도 같은 의미다.

김성월/ 여행작가. 방송코디네이터
hansol0508@daum.net

집중! 이 사람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주철기)은 '제18회 재외동포문학상' 수상작 총 30편을 선정했다고 8월16일 밝혔다.
재외동포 사회에서 문예 창작을 즐기는 이들의 축제로 자리 잡은 재외동포문학상은 올해 총 29개국 835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이 중 성인부문 대상 수상작으로 시 부문 성백군 씨(미국)의 '어머니의 마당', 수필 부문 최정우 씨(미국)의 '생일, 마늘밭에서', 단편소설 부분 배동선 씨(인도네시아)의 '지독한 인간' 이 각각 선정됐다.
단편소설 수상작인 '지독한 인간' 은 소설 속 주인공이 바로 눈앞에 서 있는 듯 현실적이고 생생하게 표현된 점이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라고 언급했다.
인도네시아 동포 중 시부문 우수상에 노은주씨(생명의 신비), 가작에 김성월씨(서로 다른 표정), 수필부문 우수상에 이동균씨(캄보자의꽃 인생)가 당선되었다.

제 18회 재외동포문학상 수상자와의 인터뷰 소설부문 대상 수상

배동선

8월24일, 한인뉴스편집실을 방문한 배동선씨

1. 수상작 소개와 수상소감

수상작 내용 :

흔히 사람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누구나 다 변하는 법이고 변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게 현실입니다. 단편소설 [지독한 인간]에서는 극단적으로 변해가는 '지독한 인간' 과 변하지 않아 적응하지 못하는 '독하지 못한 인간' 의 만남이 스토리라인의 중심축입니다. 사회적 성공을 거두었으나 개인사의 파탄을 겪는 '조선배' 가 찾기 아주 어려운 모델도 아니지만 쉽게 이용당하고 잦은 실패로 좌절하는 '나' 는 우리 주변에 너무도 흔한 캐릭터죠. 20년 터울의 학군 선후배이기도 한 두 사람이 20세기 막판에 불어온 태국발 외환위기와 온갖 부침을 함께 겪으면서 본의 아니게 주고받는 영향과 예상치 못한 사건들, 삶의 기준을 바꾸고 빠르게 변해가는 조선배와 그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나' 와 주변사람들이 엮어가는 16년간의 이야기입니다.

수상소감 :

어린 시절 꼭 승승장구했던 것도 아니지만 나이 들어 해외에 나온 후엔 더욱 궂은 일, 험한 꼴을 많이 당해 보았습니다. 그게 꼭 내게만 벌어지는 특별한 사건들이 아님을 잘 알면서도 이를 갈며 울분을 삼킨 날도 적지 않습니다. 눈부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놀라운 성공담에 비춰져 더욱 왜소해지는 스스로를 한없이 한탄하면서 말이죠. 그러다가 성공한 거인들이 딛고 지나온 거대한 발자국 밑엔 저마다의 뼈아픈 실패를 부둥켜안고 거꾸러진 수많은 '우리들' 의 안타까운 한숨과 나름대로의 드라마들이 함께 파묻혀 있음도 어느날 문득 깨닫고 맙니다. 마침내 쓰러져 버리고 만 내 이야기도 그곳 어딘가에 숨어 있을 터였고요. 그렇게 좌절하고 주저앉아버린 우리들의 이야기들을 글로 써보고 싶었습니다. 한편으론 그걸 누가 읽기나 하랴 생각하면서요. 뜬금없이 도착한 재외동포재단의 당선통지 이메일에 만감이 교차했던 건 아마도 그래서였겠죠.

어디 하나 기댈 곳 없는 남의 나라에 살면서 교회나 동문회 같은 교민모임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게 되는 건 인지상정일 텐데 제게는 학군동문들이 있었고 그중에서도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은 20기 선배님들은 더욱 각별합니다.

누구의 삶인들 극적이고 감동적이지 않을 리 없지만 이 소설에 등장하는 조선배님의 삶은 깊은 여운을 남겼고 이 글을 쓰는 동안 나 역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많이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2. 인도네시아에 정착 스토리

그리 내세울 만한 대단한 정착 스토리는 없습니다. 한 대기업 지사원으로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 왔다가 낙오한 셈이었으니까요. 현지에서 점조직 독립군이 되어 뭔가 사업을 일궈보려 했는데 그 이듬해에 외환위기가 터졌고 곧이어 자카르타 폭동이 터졌어요. 1997년, 98년의 일들이었죠. 폭동과 함께 정착해서 그런지 인도네시아 생활은 도전과 투쟁의 연속이었고 그래서 늘 독립운동 하는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웃음)

3. 글을 쓰게 된 계기

어떤 계기가 있었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글쓰기를 좋아하고 틈나는 데로 글을 쓰곤 했어요. 한때 외국에서의 삶이 고달프고 서글프기만 하던 시절 글쓰는 것도 사치라며 집어치우라는 말까지 듣기도 했지만 사실 글쓰는 것은 스트레스를 잊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최근엔 주로 인도웹에 글을 올렸는데 지난 1년간 인도네시아의 온갖 귀신들과 무속이야기로 시작해 수까르노의 일생을 통해 본 인도네시아 현대사는 무려 연재까지 했어요. 무지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했죠^^.재미없는 주제였음에도 꼭 찾아 읽어주시는 매니아 독자들도 계신 듯합니다.

공모전에 글을 내본 것은 손에 꼽을 정도인데 이제 더 나이 들면 더 이상 기회도 없고 의지도 생기지 않을 것 같아 시도해 본 것이 최선의 결과를 낳아 감사할 따름입니다.

4. 영감을 받는 곳은? (소재나 주제를 얻는 방법 등)

생업을 위해 시장조사와 마케팅을 하며 만나게 되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은 모두 제각각 그토록 독특하지 않을 수 없고 맞닥뜨리는 각종 사건사고, 사업의 부침과 실패, 파트너와의 분쟁, 배신, 좌절, 분노, 파국, 현지 공무원들과의 갈등 등등 무엇 하나 소재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역시 가장 마음에 와 닿고 그래서 더욱 들여다보게 되는 것은 우리들이 필연적으로 마주치게 되는 가슴 아픈 '실패' 들입니다. 위대한 금수저들의 찬란한 성공스토리 못지않게 우리들의 고통스러운 실패의 순간도 보다 큰 발걸음을 내딛기 위한 패자부활전의 시작점이 된다고 믿기에 더욱 감동적인 드라마를 이미 내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5. 자신의 작품세계에 대한 설명

'작품세계' 라는 단어에 손발이 오그라드네요. 나한테 그런 게 있을까요?

하지만 앞으로 그걸 만들어 나가야 한다면 앞서 언급한 '우리들의 실패' 를 보다 따뜻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글을 쓰고 싶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승자들이 있는 한 그 몇 배수, 몇 십 배수의 패배자들도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들의 패배가 꼭 부끄러운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며 누구에게나 패자부활전의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6. 앞으로의 계획

이번 수상을 계기로 글쓰기에 좀 더 시간을 할애할 구실이 생겼어요. 생업에 힘써야 할 상황에서 글 쓰겠다며 자리 잡고 앉으면 눈치가 많이 보이거든요. 요즘도 글로 돈을 버는 건 '글이 돈이 되는 기적' 이라 하더군요. 전업 작가님들 참 대단하십니다.

우선은 최근 각별한 관심을 갖게 된 인도네시아의 역사와 문화를 시간 나는 데로 좀 더 공부하면서 '인도네시아에서 글 쓰는 한국인' 이란 정체성으로 스스로를 포지셔닝 해보려 합니다. 그걸 경쟁력 삼아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까 해요.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이고 비로소 앞으로의 계획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중! 이 사람

재외동포문학상 시부문 우수상 노은주작가

1. 수상작 소개 및 수상 소감(수상작이 태어난 배경)

먼저 문학상 수상을 함께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람이 현실이 되었기에 이번 문 문학상 수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인생에도 계단이 있다면 저는 제18회 재외동포문학상 우수상 수상을 통하여 또 한 계단 위에 올라섰다고 생각해요. .

평소에 바라볼 것을 바라보려고 애썼어요. 바라본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 '관심을 갖다',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는 '사랑한다' 는 뜻이 아닐까 해요. 재외동포 문학상 수상작 '생명의 신비' 란 시는 그렇게 바라보다가 탄생했어요.

5년 전에 망고나무 한 그루를 사다가 건축폐자재가 깔린 억센 시멘트 땅을 겨우 파서 그곳에 잘 옮겨주었어요. 망고나무의 새순이 올라올 대마다 바라보고 또 바라보며 감격에 감격을 거듭했죠. 옮겨 심은 지 4년이 되는 작년 9월에는 꽃이 피더니 주렁주렁 열매를 맺고 3개월 후에는 드디어 남자 어른 주먹만한 실한 열매들을 가지가 축축 늘어질 정도로 풍성히 달았어요.

내가 망고나무를 바라봐 주었더니, 망고나무는 나에게 새순의 감격과,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열매를 통해서 다리를 놓아 주고, 4년 간 기다리는 법을 알려주고 좋은 시를 낳게 해 주었어요. 이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는 지칠 대로 지친 망고나무를 편히 눕히고, 진짜 작별을 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인도네시아에서의 정착 스토리

결혼 후 첫째 아이를 임신 한 지 7개월 째 되는 2002년 4월에 남편과 함께 인도네사아에 오게 됐어요. 여러 가지로 열악한 그 곳에서 현지인 산파를 통해 첫째를 낳았지요. 둘째는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이 곳 빨렘방 현지 병원에서 낳았고요. 벌써 세월이 흘러 15년이 되었네요. 지금까지 저와 가족은 현지 이웃들과 더불어 잘 살고 있고, 이곳에 살아줘서 애써줘서 견뎌줘서 고맙다는 그 분의 깜짝 선물로 시를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기에 충분하지요,

3. 글을 쓰게 된 계기

생각해보면 사춘기 때 늘 일기를 썼고, 인도네시아에 와서는 언어공부도 일기를 쓰며 했네요.ㅎ 또한 평소에 감사한 일을 중심으로 메모하는 습관을 들였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글감을 골라 글도 쓰고 시도 쓰지요. 시상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시집도 읽고 고전도 읽어요. 그러다가 또 시를 쓰고. 이러한 습관이 반복되는 가운데 좋은 시가 나오기도 해요.

인도네시아 생활 10년 째 되는 해, 동남아시아 신문에서 주최하는 신춘문예에서 수필부문(2012년)과 시 부문(2013년)에서 수상을 하게 되었어요. 그 후 글쓰기에 재능 있음을 확신하고 적극적인 글쓰기를 시작하게 되었지요. 지금까지 혼자 꾸준히 시를 쓰다가, 올 해 한국문협 인니지부에 가입해서 이제 혼자가 아닌 함께 시를 쓰고 있어요.

4. 영감을 받는 곳(소재나 주제를 얻는 방법)

릴케는, "시는 감정이 아니라 경험이다." 라고 했어요. 시상은 보통 내 몸을 움직여 무언가를 할 때 일어나요, 몸을 수그려 풀을 뽑고 화초를 돌볼 때, 땀을 비 오듯 쏟으며 뜨거운 부엌에서 일 할 때, 몸이 아파서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 소리 내어 집중해서 기도할 때, 잠시 누워 휴식을 취할 때, 현지 이웃들과 삶을 나눌 때, 스핏 보트를 타고 강 길을 따라 강바람을 맞으며 시골 마을을 다녀 올 때 시상이 일어나요. 일상의 모든 것에서 영감을 얻는다고 할 수 있죠.

5. 자신의 작품 세계에 대한 설명

제 시에는,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존중하는 생명존중 사상이 깔려 있고,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하고, 자연이 주는 혜택에 대해 감사해야 하는 자연에 대한 깊은 예찬이 담겨 있어요.

또한, 저에게 시는 일상의 모든 것, 즉 살아 있는 모든 것과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족, 이웃, 하나님, 자연, 동물, 하늘, 땅, 풀 등 일상 속에서 함께 호흡하는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시가 되지요. 그 모든 것과의 관계 속에서 '진실함과 친밀감' 이 더해 질 때 깊은 깨달음이 담긴 깊은 시가 나와요.

6. 앞으로의 계획

올 해 들어 4학년 아들과 함께 고전을 읽으며 시를 읽고 암송하고 있어요. 적어도 1년에 12편은 암송 하겠지요? 이것이 1차 계획이고요. 2차 계획은. 살아 있는 모든 것과 더 친밀하고 진실한 관계를 맺고 싶어요. '시는 감정이 아니라 경험' (릴케)이기 때문이에요. 3차 계획은, 글을 쓰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갖는 꿈인, 시집 출간에 대한 꿈을 갖고 있어요. 시집 출간을 위한 숙성된 시들이 쌓이는 동안, 나의 내면세계에도 좋은 시들을 암송하는 동안 말을 걸어주는 고인(古人)들과 생명이 있는 모든 것과의 깊은 관계에서 오는 친밀함과 진실함도 점점 더 무르익겠지요.

시부문 가작 김성월작가

수상소감

시(詩)라는 캡슐에 담아내는 작업

언제부턴지, 사물을 대하는 내가 무뎌지고 녹슬어 가는 게 보였다. 수면 위에 윤슬처럼 반짝거리던 전율은 무감각해질 정도로 굳어졌다.
거북이 등딱지가 되어가는 이 감성의 껍질을 깰 수만 있다면 '신선한 충격' 이든 '강한 자극' 이라도 얼마든지 받고 싶어 안달하며 반항의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이었다.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시 부문의 가작, 수상이란 메일을 받아 읽고서는 그냥, 멍(?)하니 컴퓨터 모니터만 뚫어져라 오랜 시간을 바라보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감정의 동맥경화증을 부지런히 치료하였을 터인데. 안타까움과 후회가 쓰나미로 밀려와 마음이 짠하고 가슴이 아파오기 시작한다.

리우올림픽에서 귀한 은메달을 따고도 아쉬움에 눈물을 멈추지 못하던 선수가 있었다. 국민들은 진심으로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선수 본인은 아쉬워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 같다. 반면 동메달을 받아도 기뻐하는 선수와 은메달 받으면서도 안타까워 눈물 흘리는 선수의 '서로 다른 표정' 들이 내 가슴에 문신처럼 새겨진다.

'운도 실력이다' 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노력하여 실력을 쌓아도 행운이 따라야만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상이다.

수필만 쓰던 내가 시로 받은 이 가작상은, 울퉁불퉁한 삶의 굴곡을 진솔하게 버물리고 함축하여 시(詩)라는 캡슐에 담아내는 작업을 시작해 보라는 권유의 메시지다. 아니, 제대로 한 번 더 도전해보라는 도전장이기도 하다.

거북이 등딱지처럼 딱딱하고 둔해져가던 나, 이렇게 귀한 상을 받으니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내편 같아 힘이 솟는다.
재외국민으로서 재외동포문학상을 받는다는 건 상당한 영광이다. 타국의 언어와 한글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통로에 서 있으니, 기분이 좋아 히죽히죽 웃음이 나오고 진심으로 기쁘고 재외동포재단께 감사드립니다.

차례상을 차릴 때 주의하세요~!

차례상 차릴 때에는 공통적으로 주의해야 하는 점이 있답니다!
탕이나 전, 고기는 따뜻하게 올려야 하며, 차례 음식의 간은 짜거나 맵지 않게 신경 써야 한다는 것! 또, 귀신을 쫓는 붉은 팥은 사용하지 않고, 흰 고물을 사용한 떡을 올리는 것! 그 외에도 어떤 주의점이 있을까요?

1. 제사 음식에 고춧가루와 마늘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사 음식에는 향신료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간장과 소금만으로 삼삼하게 간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한국인이 사랑하는 고춧가루와 마늘은 더더욱 들어가면 안 되는 데요, 귀신을 쫓는 대표적 음식이 고추와 마늘이기 때문에 제사상에 오르면 안된다고 해요.

2. 꽁치, 갈치, 삼치 등 '-치'로 끝나는 생선은 올리지 않는다.

'-치' 로 끝나는 생선은 예로부터 하등 생선으로 알려졌다고 해요. 그래서 '-치' 로 끝나는 생선은 제사상에 올리지 않고 '-어', '-기' 로 끝나는 숭어나 민어 조기 등을 제사상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기나 장어같이 비늘이 없고 기다란 생선은 불길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제사상에 올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3. 복숭아와 같이 털이 있는 과일은 올리지 않는다.

복숭아도 귀신을 물리치는 과일이라고 불리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복숭아도 차례상에는 올리지 않는다고 하니 유의해주세요^_^

4. 짝수가 아닌 홀수로 올린다.

예로부터 짝수는 양을 의미하고 홀수는 음을 의미하여 제사상에는 음식을 홀수로 맞추어 올렸다고 합니다. 과일이나 떡을 올릴 때 꼭 홀수로 준비해주세요~!

제사음식은 지방마다, 가정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방법이 옳다고 단정 지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역의 특산품이나 전통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요. 전라도에서는 주로 홍어, 병어, 낙지, 꼬막을 올리기도 하고, 경상도 추석 차례상에는 문어와 '돔배기' 라고 불리는 상어고기를 진설하기도 해요. 경기지역은 다산과 풍요의 상징은 통 북어를 제주도에서는 옥돔을 놓기도 한답니다.

추석의 제사는 기제사와 어떻게 다른가?

추석은 한가위, 중추절, 가배,가윗날 등으로 불리는 우리 민족의 최대의 명절이다.
음력 8월 15일에 추수한 햇곡식과 햇먹을거리로 조상에게 감사의 예를 올리는 것이다.

기제사는 늦은 밤에 지내지만 명절 제사는 장남이나 종손의 집에서 아침에 지낸다. 제수와 절차는 기제에 따르지만 무축단작이라 하여 축문이 없고 술은 한 잔만 따른다.

제수는 어떻게 차리는가?

제수는 제사에 쓰이는 제물을 가르키며 제찬 이라고도 한다. 제찬에는 고춧가루와 마늘은 쓰지 않는다. 제수는 지방과 집안에 내려오는 풍습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형식이나 가짓수에 치우치기 보다 정성스럽게 형편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좋다. 차례상에 올리는 제수는 기제상에 준하면 되는데 다만 밥 대신 송편으로 준비한다.또한 집안에 따라서는 차례상에는 탕(국)도 빼고 편(떡)을 제외시키기도 한다.

- 제수의 종류

● 메

밥을 뜻한다. 밥을 아주 수북하게 담는다. 추석 차례상에는 밥 대신 송편을 수북하게 담아 올린다.

● 편

떡을 뜻한다. 제사의 떡은 요란한 색깔을 피한다. 팥고물을 쓸 때도 하얀 팥을 쓴다. 보통 떡은 시루떡처럼 네모지게 썰어 사각 제기에 담는다. 격식을 차리자면 편 위에는 찹쌀로 빚어 기름에 튀긴 떡을 얹기도 한다. 차례상에는 송편이 올려지기 때문에 편을 놓지 않기도 한다.

● 갱

탕국을 말하는데 보통은 쇠고기와 무, 두부를 깍둑썰어 끓인 것을 국물을 넉넉히 해 국그릇에 담는다.집안에 따라서는 추석 차례상은 밥이 올라가지 않는 상이라고 해서 국을 빼기도 한다.

● 탕

밥 옆에 국으로 올려지는 갱과는 달리 건더기만 건져서 수북하게 담는 것을 말한다. 탕의 수는 1, 3, 5 홀수로 올려지는데 3탕의 경우는 재료가 고기, 생선(주로 북어), 무나 당근 등이 있고 간소하게 할 때에는 고기 한 가지만 올리기도 한다.집안에 따라서는 홍합이나 대합을 넣기도 한다.

● 적

일종의 구이로 보통 고기, 생선,닭 3적을 사용한다. 고기는 산적용으로 큼직하게 준비해 양념해 굽는다. 생선은 조기를 많이 쓰는 편이다. 닭은 한 마리를 통째로 준비해 굽기보다는 찜을 해서 올린다. 어적 (생선적)을 제기에 담을 때는 동두서미라 하여 머리가 동쪽으로 가게하고 꼬리는 서쪽으로 향하도록 놓는다.

● 전

제전은 보통 두부, 호박, 생선, 고기 등이 기본으로 사용되는데 두부는 빠지지 않는 재료이다. 그 외에 버섯 전 등을 준비하기도 한다. 제기에 담을 때는 길이를 반듯하게 맞추어 잘라 담는다.

두부는 보통 1cm 두께로 큼직하게 썰어 부치는데 다른 전과 섞지 않고 따로 담는다. 다른 전은 한 가지씩 따로 담기도 하고, 몇 가지 종류를 섞어 올리기도 하는데 적을 담을 그릇 수와 합쳐 홀수가 되게 놓는다.

- **숙채**

  익힌 나물로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삼색 나물을 담는다.
  한 그릇씩 따로 담기도 하고 어울려 담기도 한다.
  고춧가루는 사용하지 않는다.

- **침채**

  김치를 뜻하며 하얗게 담은 물 김치나 동치미를 올리는데 건더기만 건져 소복하게 담는다.

- **포**

  안주, 북어 포, 육포, 문어 포를 주로 사용한다.

- **혜**

  식혜를 담는데 밥 알 건더기만 건져 소복하게 담는다.

- **과일**

  생실과와 대추, 곶감, 밤, 사과, 배, 약과, 산자, 다식 등이 올려지는데 가짓수는 집안마다 다르므로 형편에 맞춰 준비한다. 홀수로 담는 것이 기본이다. 특히 과일은 홍동백서니, 조율이시 등 진설 방법에 있어 의견이 제각각이므로 두 가지 방법 중 한가지를 선택해 따르면 무난하다.
  밤은 껍질을 벗기고 가장 자리를 모양있게 쳐서 담고, 사과와 배는 위 아래만 잘라내고 담는다.

- 진설

진설(陳設)이란 제사에 사용하는 제수를 제상에 배열하는 것을 말한다. 제수 진설하는 방식은 지방마다 혹은 가문의 전통에 따라 다르다. 즉 집집마다 나름대로의 제사 지내는 법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가가례(家家禮)"라 한다. 진설 용어 풀이를 맞추어 보면서 제수 배열을 익히도록 하자. 동서 구분은 제주가 제상을 바라보아 오른쪽을 동, 왼쪽을 서라 한다.

- **홍동백서**(紅東白西)
  붉은 과일은 동쪽에, 흰 과일은 서쪽에 둔다.
- **조율이시**(棗栗梨)
  왼쪽부터 대추, 밤, 배, 감의 순서로 한다.
- **생동숙서**(生東熟西)
  김치는 동쪽에, 나물은 서쪽에 둔다.
- **좌포우회**(左脯右)
  포는 왼쪽에 젓갈은 오른쪽에 둔다.
- **어동육서**(魚東肉西)
  생선은 동쪽으로, 꼬리는 서쪽으로 한다.

- **두동미서**(頭東尾西)
  생선의 머리는 동쪽으로, 꼬리는 서쪽으로 한다.
- **건좌습우**(乾左濕右)
  마른 것은 왼쪽에, 젖은 것은 오른쪽에 둔다.
- **반좌갱우**(飯左羹右)
  메(밥)은 왼쪽에, 국은 오른쪽에 둔다.
- **남좌여우**(男左女右)
  남자는 왼쪽에, 여자는 오른쪽에 선다.

- 추석 전통 제례 순서

- **영신**(迎新)
  먼저 대문을 열고 병풍을 친다. 신주, 지방 또는 조상의 사 진을 모신다.
- **강신**(降神)
  조상의 영혼을 맞는 의식, 제주가 향을 피우는 일이다. 집 사자가 강신 술잔을 주면 제주는 그것을 모사(茅沙 : 그릇 에다 모래를 담는 것) 위에 세 번 나누어 붓는다. 집사 자 는 술잔을 받아 제자리에 두고 제주는 두 번 절한다.
- **참신**(參神)
  모든 참사자가 일제히 두 번 절한다.
- **음복**(飮福)
  참가자가 한자리에 앉아 제수를 나누어 먹는 일, 음복을 끝내기 전에 제복(요즘에는 양복을 입는다)을 벗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

<꿈 많은 청년들의 인도네시아 생활기 2>

치근치근 내 꿈을 준비해보자

최우호 (BINUS UNIVERSITY 학생)

나는 어렸을때부터 장사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고 한국에서 창업 경험이 있다. 그래서 학생신분인 지금도 자카르타에서 창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템과 장소를 알아보고 다닌다. 한국이나 인도네시아나 창업이란 정말 쉽지 않다. 난 항상 인도네시아의 교통체증의 장벽을 뚫고 싼값으로 각가정에 신선한 야채와 식재료를 산지에서 당일배송하는 유통망을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마트에 파는 눈알이 흐리멍텅하고 이상한 냄새가 폴폴 풍기는 생선을 볼때면 이건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내가 무슨 수로 그 힘든 일을 해내겠냐만 혹시 모르는일 아닌가? 내가 해내지 못하더라도 내 글을 본 능력있는 사람이 방법을 찾아내서 우리집 밥상에 싱싱한 생선구이를 올릴 수 있게 해준다면 그 또한 행복할 것 같다. 그래서 한국의 퀵서비스를 모티브로 만들었다는 고젝의 큰 성공은 모든 환경이 한국보다 열악한 인도네시아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는 긍정적인 도전이자 성공사례라고 생각한다.

나는 요식업에 관심이 많아서 먹거리를 많이 살펴보는데 한국에서 대박을 낸 인절미 빙수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거나, 한국이라면 파리날릴 맛없는 떡볶이 집이 현지인들로 만원을 이루는 광경은 말그대로 멘붕이다. 인절미 빙수야 현지인들 입맛에 안맞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소태처럼 짜고 맛없는 떡볶이의 인기는 설명불가다. 그래서 현지인들을 이해하기 위해 1년전부터 이나라의 역사, 지리, 날씨, 민족성, 종교까지 공부했다. 그리고 현지친구에게 내가 야심차게 준비한 치킨마요라는 요리를 만들어서 팔면 어떨지 평가를 부탁했다. 닭고기를 사랑하는 현지인들 입맛을 공략했다.

치킨마요는 흰밥위에 작은 치킨조각과 마요네즈, 달걀 스크램블, 데리야끼소스를 얹어 비벼먹는 덮밥류로 10여년전 한국의 한 도시락 업체에서 대박내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음식이다. 친구들은 맛있다고 했다. 하지만 잘 팔릴진 모르겠단다. 이걸 팔면 대박일꺼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리고 두 번째 도전이 중국식 고기덮밥이었다. 피망과 양파, 브로콜리를 큼지막하게 썰어 기름에 볶아주고 훈제삼겹살을 곁들여 미지근한 흰 밥위에 올려먹는 음식인데 피망의 향긋함과 훈제고기의 향이 일품이다. 무슬림들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걸 감안해서 차선책으로 오리고기와 닭고기를 준비했지만 이음식 또한 맛있다는게 다였다. 그리고 현재 세 번째 요리를 준비하고 있다.

마음만큼은 당장이라도 가게를 내고 장사를 하고 싶지만 창업을 위한 자금과 장소문제가 내 발목을 붙잡는다. 교민들이 운영하는 음식점들은 대개 한국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좋은 위치에 자리하고 인테리어가 고급스럽고 넓으며 많은 종류의 음식을 판다. 이런 매장들은 우리 청년들이 엄두도 못낼 창업자금이 들어간다. 그래서 내가 알아본 곳이 Pasar Santa나 Pasar PIK의 2~3평 정도하는 작은 매장이다. Pasar Santa는 자카르타의 동대문시장이라고 비유하면 좋을 것 같다. 한국 식당 토박 근처에 있는 건물로 1층에는 생필품 및 잡화, 꽃 등을 파는 작은 상점들이 가득하고 2층에는 2~3평정도 되는 작은 음식점, 서점, cd가게, 그림그려주는곳, 사진찍어주는곳 등등 정말 많은 매장들이 옹기종기 붙어 있고 사람들 또한 인산인해를 이룬다. 한건물 안에서 세계의 수 많은 음식들을 한번에 맛 볼 수 있고 특히 핫도그 집을 비롯한 몇몇 가게는 항상 긴줄을 서야될만큼 장사가 잘된다.

임대료도 쇼핑몰 안에 위치한 비슷한 크기의 매장보다 많이 저렴하다. 내가 준비한 치킨마요덮밥을 이곳에서 팔아본다며 혹시 그 핫도그처럼 긴줄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기대가 된다. 내눈에 든 또 다른 곳인 Pasar PIK은 Pantai Indah Kapuk에 있는 한국의 재래시장 느낌의 야시장이다. PIK은 화교와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 한국음식점도 많이 있을뿐 아니라 중국풍 음식점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pasar pik 안에는 다양한 음식점들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확보되어 있다. 내가 만든 향긋한 피망향이 풍기는 훈제삼겹살 덮밥을 화교들이 많은 이곳에서 판다면 혹시 대박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창업을 준비하다 보면 성공할 것 같다는 기대로 가득차 힘차게 일을 진행하지만 때론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으면 어쩌나 걱정이 돼 섣불리 시작할 수 없다. 이미 아찔한 경험을 여러번 해봤기 때문에 고민이 더 깊어진다. 나는 한국에 있을 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커피전문점과 닭강정, 샌드위치 등을 파는 스넥코너 매장을 운영 했는데 휴게소라는 특성상 꽃놀이와 가정의달 기간인 4월과 5월, 휴가철인 8월, 그리고 설과 추석이 대목중에 대목이다. 내 가게는 경남 창원에 위치했고 프랜차이즈 매장이라 필요한 재료들을 본사가 있는 서울에서 1주일에 한번씩 공수해왔다. 2014년 4월. 매출 고공행진에 들뜬 나는 냉장고가 모자랄 정도로 재료들을 가득 시켰다. 냉동닭을 쓰면 해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염지된 생닭으로 200kg 주문했다. 직원들 편하게 해주려고 알바도 2명 더 채용했고 이제 만들어서 팔기만 하면 다 돈이니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 하지만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면서 여론이 심상치 않더니 결국 이틀 후부터 매출은 1/5로 뚝 떨어졌다. 그 후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매출 하락을 떠나서 냉장고 안에 준비해둔 닭고기와 야채, 햄, 빵 등 수백만원 어치의 재료들을 폐기하는 씁쓸한 상황이 발생했다. 학생들을 태운 단체버스가 매출의 상당부분을 책임져 줬었는데 수학여행과 현장학습등의 전면 중단은 나에게 정말 청천벽력같은 소식이었다. 그렇게 큰 손실을 입고 몇 개월 후 믿었던 7월말 휴가철이 왔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평소보다 많은 재료를 준비했음에도 밀려드는 손님들로 인해 재료가 떨어져서 인기품목을 팔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손님들은 밤 늦게까지 몰려드는데 재료가 없어 판매가 안되니 그렇게 속이 쓰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음날 급하게 본사에 요청해서 모든 냉장고를 가득 채울만큼 넉넉하게 물건을 공수해왔다. 그리고 3일정도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21일동안 단 이틀을 빼고 하루에 몇시간씩 폭우가 내렸다. 설상가상으로 파도를 타고 밀려온 난파선 쓰레기더미가 해운대 해수욕장을 덮쳐서 10일 가량 폐장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고속도로에 위치했던 내 가게는 직격탄을 맞았다. 휴게소의 다른 매장들도 전년대비 매출 반토막이 나는 상황이 발생했고 휴가철을 대비해 고용했던 알바생 3명을 집으로 돌려 보냈을뿐 아니라, 또다시 많은 재료들을 폐기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재료값을 지불하지 못해서 독촉전화를 받기 시작하자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나한테 왜이러는거냐고 하늘을 원망하기도하고 내 자신을 책망하며 눈물흘렸던 날이 있었다..

내가 운영한 가게의 결말은 해피엔딩이었으나 1년이상 가게를 운영하면서 10kg이 넘게 빠지고 잠도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주변사람들이 너 그러다 몸상한다고 할만큼 열심히했으나 의도치 않게 여러번 망할뻔한 기억이 난다. 창업의 이런점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월급쟁이의 삶을 생각해보기도 했으나 다시 도전하고 싶다. 아직은 실패해도 일어설 수 있다는 충분한 용기가 있다. 앞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인도네시아에 대해 더 배우고 경험하며 차근차근 준비해서 다시 도전하고자 한다.

통일!골든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17일, 롯데쇼핑 에비뉴아이스 팰리스 홀에서 외국인에게 우리의 한반도 문제를 알리고 우리아이들에게는 통일의식과 세계평화의 지식을 조금이나마 알리고자 '통일!골든벨' 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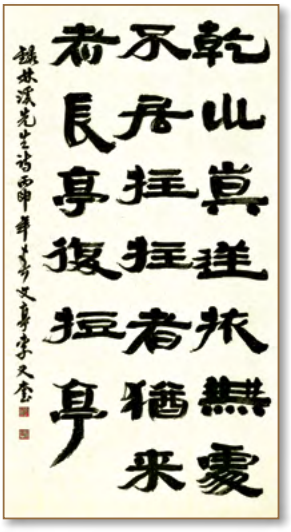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남아남부협의회(회장 전민식)와 코윈 인도네시아 지부(회장 박현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대사관과 한인회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평화통일과 세계평화를 주제로 한인 청소년들이 외국 친구들과 2인 1조가 되어 시사, 통일, 문화, 역사로 분류된 문제를 풀어나갔다.

50여 팀, 100여명 학생의 열띤 경쟁으로 성대히 치러진 통일 골든벨 조별 예심은 OX 퀴즈, 주관식, 패자부활전 등으로 진행하여 9팀이 선발되어 *주인도네시아 한국 대사상(장학금 1천만 루피아), *만주평통동남아남부 회장상(장학금 5백만 루피아), *코윈 회장상(장학금 5백만 루피아), *민주평통아세안부의장상(장학금 4백만 루피아), *한인회장상(장학금 4백만 루피아)을 수상했다. 대사상을 받은 우신재군과 Yongkiat군은 상금과 상장과 세계 통일 골든벨 대회출전 기회를 획득했고, 참가자 전원에게 참가증서 및 기념품을 증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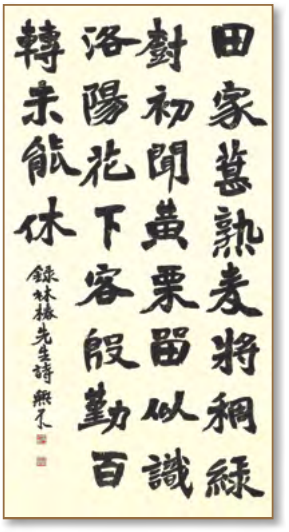
행사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 청소년에게 올바른 통일관과 세계관을 퀴즈로 통해 자연스럽게 심어주고 청소년들을 세계 선진 시민으로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며 "이번 대회를 통해서 남북한 관계와 세계정세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과 인식을 넓혀 안보의식을 높이고 청소년들이 지성과 감성을 겸비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아쉽게도 모든 학생들은 결선에 진출하지 못했지만, 이번 '통일 골든벨' 행사를 계기로 학생들이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역사의식을 바로 세워 균형 있는 통일관을 형성하여 미래 통일준비 역량 강화의 밑거름이 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인니교포들의 서예!
2016, 서울서예대전 시상대에!



문정 이우규 임계선생 시 1



무불 김유만 임춘선생 시 1

도념 제경종 – 우수상 작품
구위선생 시 1

인도네시아 한인서예동호회 <자필묵연> 소속 동호인들의 능력이 대한민국 서단을 놀라게 하고 있다. 2016, 서울서예대전에서 거둔 출중한 결과가 그것을 증명한다. 자필묵연 회원들은 이번 공모전에 한문서예, 한글서예, 문인화 등 총 36점을 출품하여 24점이 입상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우수상을 수상한 도념 제경종씨를 비롯해서 특선에 무불 김유만, 문정 이우규씨가 선정되었고, 21점이 입선의 영예를 안은 것이다. 지난 5월에 있었던 대한민국 서예대전에 이은 참 놀라운 성과가 아닐 수 없다.

2016, 서울서예대전 시상식은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오는 8월 24일 오후 3시에 거행될 예정이며, 전시는 8월 24일 ~ 8월 30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영예의 입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우수상
도념 제경종

특선 2명
무불 김유만, 문정 이우규

입선 21명
의암 강병출, 일우 김도영, 하정 김영욱, 이화당 나순금, 운초 김영주, 차운 김정민,
이담 김행일, 유산 류용선, 아정 박순금, 연곡 박재한, 취현 박재환, 혜산 송판원,
평곡 이상식, 담사 이미화, 초암 이현태, 묵정 장임, 이도 정재익, 중현 조건웅,
삼이 차정민, 화정 최경수, 여송 홍성민

한편 자필묵연은 오는 9월 22일 ~ 27일까지 자카르타 한국문화원에서 제11회 정기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그간 자필묵연은 자카르타에서 9회의 정기전을 쌓았으며, 2015년 5월에서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으로 자리를 옮겨 귀국전 <적도의 묵향, 서울 나들이>를 치렀다. 그 여력이 한국의 유명 공모전에서도 유감없이 빛을 발하고 있다고 하겠다. 자필묵연은 2016년 올 남은 기간에도 9월의 정기전은 물론 10월 한글의 날 찌까랑 자바팔레스 호텔 제3회 한글서예초대전, 12월 연하장전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배연자 고문, 제3대 회장으로 선출

한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부 (회장 현상범, 이하 자총인니지부)는 8월12일 오후6시 문화회관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배연자고문을 제3대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배연자 신임회장은 수락연설에서 "자카르타 주변 도시에 지회를 설립하여 지역별 활성화를 기하고, 한국의 중앙회 및 후원단체 등을 통한 행사지원 방안을 최대한 모색함은 물론, 젊은 시절로부터 시작된 자총과의 운명적 만남을 승화시켜 애국·호국단체로서의 한국자유총연맹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하였다.

배연자 신임회장은 젊은 시절 멸공계몽지도요원으로서의 활동을 비롯하여 오랜 동안 공무원으로 국가를 위해 일하였으며 대통령 표창(2회), 장관 및 단체장 표창을 수 차례 수상한 경력 외에, 현재는 대국한국일보사의 독도 국제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자총인니지부의 고문으로서 매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따뜻한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한국자유총연맹은 '국가안보태세를 든든히 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고 발전시키며, 조국의 평화통일을 선도하는 국민운동단체" 이다. 자총인니지부는 3.1절과 6.25 기념행사를 비롯하여 동포학생들의 역사관 확립을 위한 역사퀴즈대회, 인니정부와 공동으로 시행한 쓰레기줍기 및 나무심기행사 등을 통하여 동포들과 함께 함은 물론 민간외교관의 역할도 활발히 해오고 있다.

[대사관 동포안내문]
“신변안전 유의 안내 ”

1. 최근 북한 고위 인사의 탈북과 북한의 잇따른 보복 위협 등으로, 해외에 방문 또는 체류중인 우리 국민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 이에 동포 및 여행객 여러분께서는 평소보다 더 한층 각별히 신변안전에 유의하여 주시고, 주변의 친지, 지인은 물론 방문객에 대해서도 테러에 주의해 주실 것을 주지시켜 드리기를 당부드립니다.

3. 신변안전 관련 특이사항이 발생하실 경우에는
   · 대사관 영사과 직통전화 : 021)2967-2580
   · 당직전화 : 0811-852-446
   · 대사관 대표 이메일 : Koremb_in@mofa.go.kr 로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내 귀중품 절도 신종 수법 유의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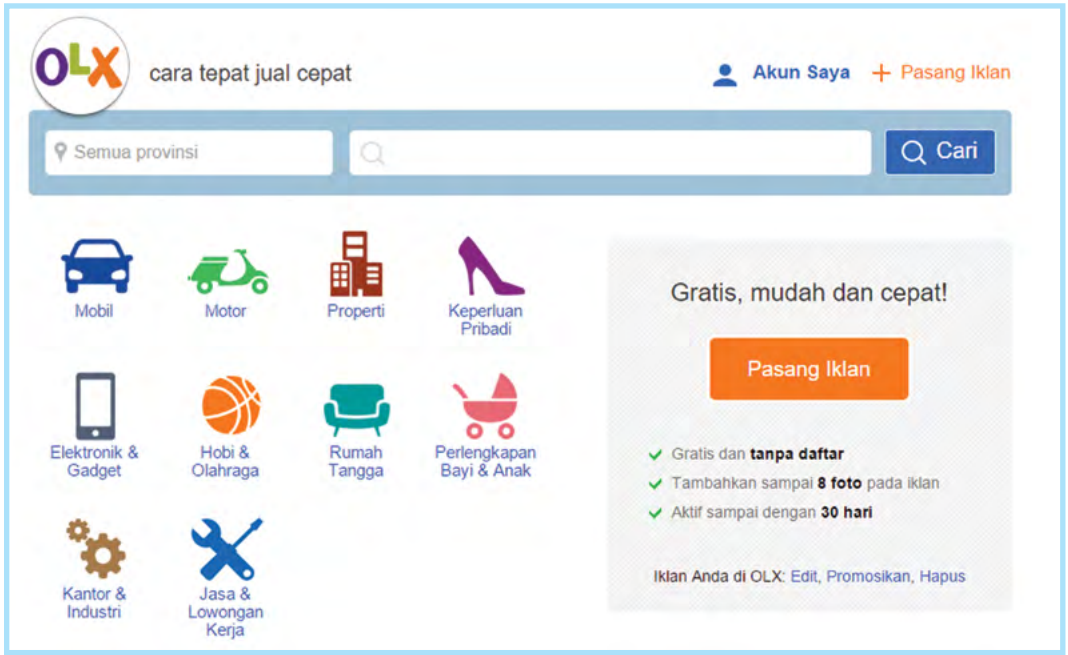
○ 최근 자카르타 지역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한 절도범들이 2~3개조를 이루어 각자 임무 분담 (망보기 · 운전자 시선 분산 · 차량내 물건 절취)을 통해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 시킨 후 차량내 귀중품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으니 특히 자가 운전자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으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절도범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차량을 뒤따르다가 차량 운전자에게 차 뒷부분에 이상이 있으니 확인 해 보라고 하면서 차량을 세우게 한 뒤에

– 차량 운전자가 하차하여 차량을 살펴 보는 사이 다른 공범이 순식간에 차량내에 있던 가방 등 귀중품 등을 훔쳐서 달아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음.

※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범행 시간이 1분도 채 안걸리는 등 순식간에 절취하고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도주 하였다고 함.

사무실, 집 이사도 스마트하게



박상훈 (sanghoon.pak@gmail.com)
Worldwide Logistics Indonesia 법인장

인도네시아 생활하시면서 집이나 사무실 구하기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인도네시아의 경우 이사철은 따로 없지만, 대부분이 1~2년마다 집이나 사무실 계약이라 이사를 가야 할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한국처럼 부동산이 동네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아는 분이나 아파트 관리소에 이야기해서 집을 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가서 매번 봐야 하기에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오늘은 집이나 사무실을 구하실 때 도움이 될만한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집 찾기 서비스, 그 첫 번째 서비스는 KASKUS (www.kaskus.co.id) 입니다.

물론 이 곳이 집 찾기를 대표할 수 있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제일 먼저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KASKUS는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서비스를 대표 할만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네이버와 다음이 있다면, 인도네시아에는 KASKUS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비해서 그 위상이 많이 줄었다고는 해도, 여전히 KASKUS는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사이트이고, 인도네시아 현지인에게는 인터넷의 성지와도 같은 곳입니다. Forum(한국으로 따지면 Community)을 중심으로 뉴스, 리뷰, 쇼핑까지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곳에서는 중고 거래도 많이 일어나며, 부동산에 대한 정보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꼭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인도네시아에 궁금한 정보가 있을 때는 KASKUS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사이트는 OLX (www.olx.co.id) 입니다.

TOKOBAGUS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OLX는 TOKOBAGUS를 인수한 회사의 이름입니다. 특이하게 남아공 회사이고, 이 서비스는 한국서비스에 익숙한 관점에서 보면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 서비스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다양한 카테고리에 자신의 광고를 무료로 올릴 수 있는 곳인데, 오픈마켓(Ebay, Tokopedia, Qoo10, Elevenia 같은)처럼 결제와 에스크로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가장 많은 실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며, 몇 년 전만해도 OLX(TOKOBAGUS시절)만큼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볼 수 있는 곳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전문 카테고리 서비스들이 많이 생겨나는 추세라, 부동산과 자동차 거래는 주춤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양한 분야의 물건(중고물건 포함)을 구매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소개해 드린 두 곳 모두 다양한 활용도가 있는 사이트이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오늘의 주제인 부동산 찾기에도 좋은 사이트입니다. 이제부터는 전문 부동산 사이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부터는 순서에는 의미가 없으니, 다양한 사이트를 함께 써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Lamudi Indonesia (http://www.lamudi.co.id/)

20개국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글로벌 회사의 인도네시아 사이트입니다. 다양한 옵션을 적용해서 집을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 Rumah.com (http://www.rumah.com/)

2011년 싱가폴 회사에 인수되었고, 현재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부동산 Portal입니다. 6,400명의 부동산 중개인과 220,000개에 다다르는 부동산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바일 APP을 지원해서 스마트폰에서 편안히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Rumah123.com (http://www.rumah123.com/)

Rumah.com의 경쟁사이트로 다수의 부동산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옮긴 사무실을 Rumah123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역시 모바일 APP을 지원합니다.

4) Rumahku.com (http://www.rumahku.com/)

2009년도에 런칭한 사이트로,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많은 230,000개에 다다르는 부동산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5) UrbanIndo (http://www.urbanindo.com/)

2011년도에 생겼지만, 가장 추천해 드리고 싶은 사이트입니다. 검색 조건이 다양하며, 부동산에 대한 평판과 비슷한 형태의 부동산 찾기, 부동산 가격분석 등 다양한 콘텐츠를 함께 제공합니다. 떠오르는 부동산 사이트이며, 200,000개의 부동산 리스트와 20,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부동산 전문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각자의 특색이 있는 사이트이니 다양하게 한번씩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사도 스마트하게 준비해 보십시오.

JIS 의 개학

(학생기자 JIS 김재호)

2016년 8월 10일, 달콤하고 유쾌했던 방학이 끝나고 자카르타 국제학교 (Jakarta Intercultural School)의 학생들은 개학을 맞이했다. 학교에 들어서는 순간,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반갑게 인사하며 방학 동안 못했던 이야기들을 하는 학생들, 새 학기에 들어서며 더 열심히 하자고 자신한테 다짐하는 학생들, 학교에 처음 와서 아직 적응이 안 돼 보이는 학생들 등, 아주 많은 얼굴들이 보였다. 언제나 그랬듯, 자카르타 국제학교의 첫날은 Fine Arts Theatre에서 환영식 겸 앞으로의 공지 알림을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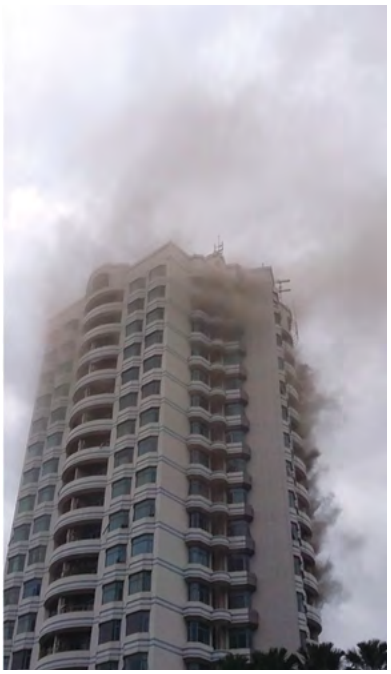
환영식에서는 학교 대표들이 새로 오신 선생님들을 소개해 주었고, 우리는 새로 오신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환영해 주었다. 새로 오신 선생님 중에는, Mrs. Lane Graciano (12학년 영어 선생님), Mr. Matthew Macmillan (11-12학년 경영 선생님), Sarah Cloughley- Dalzell (11 학년 수학 선생님) 등이 오셨는데 각자 자신의 이름, 가르칠 과목, 또 '자신이 무인도에 떨어진다면 어떤 한가지 물건을 가져갈지' 를 소개해 주었다. 새로 오신 선생님들께서 우리 학교에서 좋은 추억들을 만드시고 학생들과도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잘 적응하셨으면 좋겠다. 마지막에 썰렁한 개그와 함께 학년별로 열심히 하라는 덕담을 열정적으로 해주시는 교장 선생님, Mr. Clark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환영식이 끝난 후, 학생들은 자신이 각자 선택한 수업 과목에 선생님들을 만나 서로 첫 인사를 나룰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방학 동안에 학생들은 오랜만에 자유를 맞이한 만큼 휴식을 취하거나 학교에서 못다 한 공부, 또는 다음 학기에 할 공부들을 미리 예습했다고 한다. 어떤 학생은 유럽에 가서 그 나라의 전통과 문화를 배우고, 또 어떤 학생은 인도네시아에 남아 자신이 희망하는 회사에서 인턴생활을 하는 등 나름대로 알찬 방학을 보냈다는 소식도 접할 수 있었다. 새 학기가 시작된 만큼 우리 모두 화이팅 했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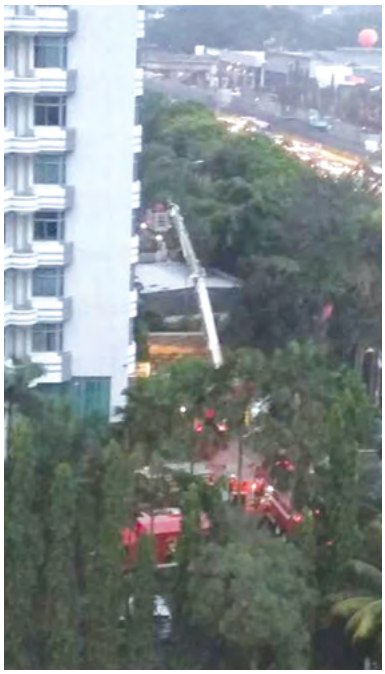
교장 Mr. Clark

2016 년 8월 월간 경제 브리핑

제공:자카르타경제신문(pagi.co.id)

찔란닥 빠라마 아파트 화재사고 '인명피해 없어…전기합선 추정'





화재가 발생한 빠라마 아파트에 연기가 치솟고 있다. 건물의 약 1/3 가량에 불이 번진 모습.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14일 오후 5시께 발생한 남부자카르타 찔란닥 빠라마 아파트(Apartemen Parama) 화재에서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됐다.

이날 화재 현장에는 남부자카르타 소방서와 동부자카르타 소방서에서 무려 38대의 소방차가 출동했다. 고층 아파트였기 때문에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불길이 발생한 지 약 두 시간만인 오후 6시 50분경 진압이 완료됐다.

소방당국은 아파트 12층에서 처음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받았으나 주민 등 일부 목격자들은 3층에서 화재가 시작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가스통이 폭발한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소방당국은 14일 현재까지 현장 상황 등을 토대로 볼 때 전기합선에 의해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구조된 주민들 중 일부는 산소 부족 증세를 보여 인근 실로암 병원 등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빠라마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인들도 일단 인근 호텔이나 지인들의 집으로 대피해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있다. 한편, 이날 화재 현장에는 대사관이 경찰 주무관 등 현장대응반을 급파해 화재 현장과 인근 병원 등에서 한인 사상자 여부를 확인했다.

한편 뜨리 꾸르니아디 남부자카르타시장은 이날 오후 "빠라마 아파트 건물은 주거용 또는 기타 용도로 사용하기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고 지난 3월 건물 사용금지(폐쇄, segel) 경고를 발부받았다. 그러나 건물 운영진이 바쁘다는 비상식적인 이유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계속 지내온 것으로 보인다. 15일부터 조사에 착수할 것" 이라 밝혔다.

까라왕도 외국인감시팀 설치…까라왕군에만 30개 팀 구성

까라왕도 외국인 감시팀을 만들었다.
(Tim Pengawasan Orang Asing/ TIMPORA)

이민국의 유로드 살레 감독집행부장은 2일 서부 까라왕 레신다 호텔에서 외국인 감시팀을 구성했다는 것을 알리는 행사를 열고 "인도네시아에 사는 외국인들은 현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 오히려 해를 끼치거나 불법으로 인도네시아에 입국했다면 적발 즉시 본국으로 되돌려보내질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 행사에는 서부자바 법무인권부 지역대표 수시 수실라와띠, 까라왕 지역을 담당하는 군인과 경찰, 까라왕군 주민대표단이 참석했다.

유로드는 부장은 "현재 정부가 외국인들에게 관광, 투자 등의 목적으로 인도네시아 방문을 장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최근 169개국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이 제도는 인도네시아 입국을 외국인들이 마음 내키는 대로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입국한 외국인들은 인도네시아의 규정들을 지켜야 한다" 고 강조했다.

수시 수실리아와띠 서부자바 법무인권부 지역대표는 "까라왕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감독하기 위해 이미 30개의 외국인 감시팀을 구축했다" 고 밝혔다. 까라왕군의 외국인 감시팀 인원은 전국에서 가장 많다. 또한 외국인 감시팀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련 정부령(Peraturan Pemerintah No. 31/2013, pasal 94)에 따라 팀원이 정부기관 관계자, 경찰, 군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소규모 마을(desa)까지 포함해 외국인들에 대한 감독 권한이 부여된다.

까라왕군 외국인 감시팀은 주민들에게 의심스러운 외국인을 발견하면 콜센터 081218431636 또는 0267-400725에 문자나 전화로 제보해달라며, 제보시에는 신고자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를 밝혀야 한다고 당부했다.

딴중 빼락 이민국(Kelas I)의 사파르 무하마드 고담 이민국장은 지난 4월 26일 수라바야에서 "인도네시아 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는 외국인 선원들을 감시하는 팀을 구성했다. 이는 첫 번째 외국인 감시팀이다" 라고 밝혔다.

이후 지난 5월 25일에는 남부자카르타 깔리바따 시티 아파트 사쿠라타워 1층에 외국인 감시팀이 설치돼 이민국 직원, 군인, 경찰, 시청 직원 등이 배치됐으며 외국인들의 KITAS 검사를 실시하고 주거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은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들을 적발해 왔다.

한편, 이민국 데이터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올해 1월부터 4월 중순(4월 18일 기준)까지 1,335명의 외국인이 체류 관련 문서 및 목적이 뚜렷하지 않거나 비자와체류 목적이 다른 것으로 판명돼 국외추방(deportasi) 당했다.

인니 경찰 "싱가포르에 로켓공격 모의" IS 추종자들 체포

싱가포르에 인접한 인도네시아 휴양지 바탐 섬에서 싱가포르 중심가로 로켓포 공격을 모의한 IS 추종자들이 현지경찰에 체포됐다.

인도네시아 경찰청은 5일 오전 리아우 제도 바탐 섬 일대에 은신해 있던 현지 테러조직 '카티바 GR' 조직원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바탐 섬에서 싱가포르 해협 너머로 로켓을 쏘아 약 20㎞ 떨어진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를 공격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바탐 섬에서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까지는 위치에 따라 10여㎞까지도 줄어든다.

보이 라플리 아마르 인도네시아 경찰청 대변인은 "이들의 은신처에서 다수의 무기를 발견했다"면서 "이들은 IS의 동남아 출신자 부대인 '카티바 누산타라'의 지도자 바룬 나임의 도움을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다만, 보이 대변인은 싱가포르에 대한 로켓 공격은 계획 단계였다고 밝히고 용의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체계를 이용해 로켓을 날리려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들 용의자는 현재 인도네시아 경찰 대(對) 테러특수부대 '88파견대'(덴수스 88) 본부에 수용돼 조사받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와 관련해 내부 국경단속 및 내부 경계태세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 내무부는 "테러 음모가 확인된 이후 이들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연루자를 색출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당국과 밀접히 공조하고 있다"면서 "이번 음모는 싱가포르에 대한 테러 위협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조명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9월부터 자카르타발~인천행 오전출발편 사라져

이달부터 대한항공 자카르타~인천 출발편 중 매주 월/목/일 운항해 온 오전 출발편 항공편의 시간이 변경된다. 변경되는 일정은 8월 11일, 8월 18일, 8월 25일, 9월 1일이며 모두 목요일 출발편이다.

대한항공은 인도네시아의 경기 위축에 따른 수요 부진으로 인천~자카르타 노선에 대해 수·토·일요일 주 3회 운항하던 2가지 항공편(KE625·KE626편)을 9월부터 운휴한다. 이에 따라 매일 낮 인천에서 출발하는 비행편(KE627·KE628편)만 남게 돼 이 노선의 운항횟수는 주 10회에서 주 7회로 축소된다.

대한항공 측은 지난 6월 공지를 통해 자카르타발 인천행(오전 8시 15분 출발, 17시 35분 도착) KE626편이 자카르타발 인천행(밤 22시 05분 출발, 오전 07시 05분 도착) KE628편으로 변경된다고 각 여행사에 알렸다.

현재 8월 일정 가운데 월요일, 일요일 출발편은 변동 없이 오전 출발이 가능하지만, 목요일 출발편은 이달부터 오후 출발로 시간대가 통합됐다. 9월 1일 오전 출발편 역시 오후 출발로 통합됐다.

사실상 대한항공의 자카르타 오전출발 항공편은 8월 29일(월) 출발 항공편을 마지막으로 사라지게 된다.

*변경되는 일정:
-8/11, 8/18, 8/25, 9/1 (목요일) 출발편

*변경 전 시간
KE 626 자카르타-인천 0815~1735

*변경 후 시간
KE 628 자카르타-인천 2205~0705(+1)

자카르타 경제신문
Jakarta Biz Daily · KOREA
Korean Language Newspaper

나를 찾아가는 시간

글: 김태근(JIKS 졸업생, 연세대 국문과 3)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서의 생활을 시작한 지 어느덧 햇수로 5년이 되었다. 한국의 학생들이 그러하듯 대학 진학은 고등학교 시절 나의 유일한 목표였고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만족스러운 대학교에 입학했다. 합격 통지를 확인했을 당시의 짜릿함은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다. 대학 입학 전까지의 시간에는 주로 친구들과 어울리고 대학에 간 후를 상상하며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우리의 주 고민거리는 '한국에서 무시당하지 않을까'와 '대학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까'였다.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재외국민 학생들은 은연중에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이다. 실제로 공부가 어렵고 사람을 사귀지 못해서 휴학 후 조용히 자카르타로 돌아와 있는 선배들의 선례도 있었고 선생님들을 비롯한 주변 어른들도 가서 잘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반복해서 강조했다. 이런저런 충고와 조언들을 새기며 막연하기만 했던 한국 생활을 시작했다.

새내기 시절의 나는 워낙 '공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한국에서 공부한 애들하고 경쟁하는데 괜찮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터라 유난히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편이었다. 게다가 외국에서만 공부한 처지에 국어국문학과를 전공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열등감이 배가된 탓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물론 대학 별로 그리고 과 별로 차이가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나의 경험을 그리고 열등감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내가 속한 단체에서는 학기 초에 입학 전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수능이 어떻다는 시시콜콜한 얘기로 시작해서 왜 그 끝은 항상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토론하고 정치적으로 끝을 냈던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고,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끼어들 수조차 없었다. 주변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에서 늘 모르는 단어가 있었고 강의 내용을 못 알아듣는 것은 정말 흔한 일이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보니 자연스레 말 수가 줄어들었고 무리에서 겉돌았다. '나는 한 수 아래'라는 생각과 스스로 가진 능력에 비해 너무 높은 수준의 대학에 왔다는 생각을 떨쳐버리기가 어려웠다.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견디기가 고통스러웠고 받아들이기도 힘들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해외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노력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한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특혜를 받고 있다. 반면에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의 삶은 매일이 피곤하고 재미가 없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 미처 잠이 다 깨지 않은 채로 등교하고 그렇게 온 종

일 무거운 몸을 이끌고 학교와 학원 독서실을 전전하다가 집에 들어와 또 공부를 하고난 늦은 밤에야 잠이 든다. 노력의 정도가 다르고, 공부의 양도 월등히 많다.

더 많이 고생하고 노력한 사람이 더 나은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다. 열등감에 찌들었던 시절의 나는 노력도 기울이지도 않은 채 전과 같은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 욕심쟁이였을 뿐이다. 몸은 새로운 환경에 있는데 생각은 아직 과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꼴이었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나'를 받아들이기로 생각을 고쳐먹은 후에는 점차 답답한 마음이 해소되기 시작했다.

마음에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긴 후에서야 나는 여유롭게 대학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어쩌면 즐기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일지도 모른다. 그동안 겉돌았던 시간들이 아까워 자주 얼굴을 비췄고 정말 악착같이 놀았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니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가까워졌고 주변에 사람이 생긴 후부터는 불안했던 대학생활에 안정감이 찾아왔다. 사실 스스로 이런 생각을 고치고 노력을 기울이게 된 데에는 한 대학 동기의 조언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한창 심적으로 힘들었던 대학 초년 시절, 나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신세한탄 하듯 털어놓고 다녔는데 그때 그 친구가 그게 무슨 고민거리이냐는 듯이 내게 이런 말을 했다.

'그걸 네가 왜 신경 써?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그건 걔들이 이상한거지. 그런 생각을 하는 애들이 열등감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뽑힐 만하니까 뽑혔겠지. 학교가 돈 벌겠다고 아무나 막 뽑지는 않았을 것 아냐? 네가 한국애들보다 잘하는 게 뭐가 있으니까 데려왔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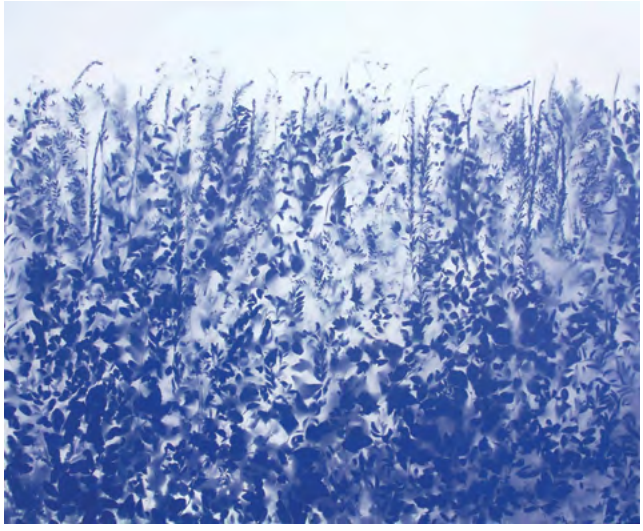
다시 생각해도 너무 고마운 한 마디였다. 이 시기에 여러 사람들의 위로를 받았지만 '네가 잘하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만큼 정신이 번쩍 나게 해주었던 말은 없다.

시기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쯤 고3 학생들은 모두 한국에서 입시 전쟁을 치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수개월 후에는 각자 다른 대학에 진학해서 인생의 2막을 살게 될 것이다. 다들 설렘 반, 두려움 반의 마음으로 대학 생활에 대한 저마다의 기대감에 부풀어 있을 것이다. 분명히 말해줄 수 있는 사실은 대학은 그런 기대를 해도 실망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좋은 곳이다. 자신의 생각보다도 해볼 수 있는 활동 종류의 폭이 넓고, 선배 혹은 후배와의 핑크빛 로맨스가 기다리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을 만나볼 수도 있다.

누군가는 한국에서 자란 친구들은 계산적이라 대학에서부터는 진정한 인간관계를 이룰 수 없다고 얘기하고 공부를 따라가기도 벅찰 것이라고 겁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도 주눅들 필요도 없다. 한국에서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들이 많고 스스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혹시나 한국 생활을 시작하면서 혹은 하는 도중에 나와 같은 열등감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다. 사람은 저마다 다른 장점을 가진다. 그 장점이 꼭 성적이어야 할 필요는 전혀 없다. 자신이 충분한 가치를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대학 생활을 꼭 즐길 수 있었으면 한다.

마음으로 가꾸는 정원,

작가 김 상열



대지의 에너지를 담은 나뭇잎들은 미풍에 흔들릴 듯하다.
소란한 하루 속에 정지되어 있는 듯 무심한 자연은 안개같은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에 묻혀 아련한 기억과 추억 속에 관객을 자연스레 몰입하게 한다.

'비밀의 정원' 작품을 보고있노라면 캔버스 이지만 수묵화의 서정을 재현한듯 담백하고 청아 하며 정감의 깊이가 느껴진다.
풀잎냄새 맡으며 느림, 여백, 관조의 넉넉함 까지…
마음이 시원하게 활짝 열어 젖혀짐을 느껴보고 있노라면 자연은 소유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누리는 자의것임을 알 수 있다.

"오랜 시간 나의 작업은 자연에 늘 가까이 다가서기위해 노력해 왔었다.
청명한 하늘 그리고 잎사귀 위로 떨어지는 반짝이는 햇살, 수양버들, 댓잎 부딪치는 소리,
이른 아침 피어오르는 물안개, 호수에 담긴 물 그림자…
자연의 경이로움은 지금도 마치 마법처럼 무한상상의 공간으로 나를 이끈다.
나는 어둠에서 빛을 찾아가듯 천천히 자연을 찾아가는 긴 여정을 시작하고 있다."

-작가노트-

'자연' 은 늘 김 상열 작가의 창작의 주제였다.
경상북도 청도의 한 폐교에 위치한 작업실을 매일 왕래하면서 그는 자연스럽게 자연 속으로 들어오게 되며 이때부터 사계절의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과 위안을 작품에 반영하기 시작하고 마침내 자신의 화풍을 확립하게 된다.

붓으로 그린 정형화된 모습이 싫었다는 작가 김상열은 초기작에서 부터 인위적인 붓의 느낌보다는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이미지 작업에 중점을 두었다.

세목 캔버스에 (캔버스 천의 결이 매우 촘촘한) 젯소를 여러 번 올리고 나서 사포로 갈아내어 매끈하게 표면처리를 한 뒤 블랙컬러 (블루계열 등)의 아크릴 물감을 캔버스 전체에 칠한다.

일반적으로 서양화는 흰 캔버스에 색을 올려 채색 과정을 통해서 작품을 완성해 나가지만 김상열 작가의 경우는 캔버스가 가지는 물성을 완전 제거했다.

기성의 흰 캔버스 대신 매끈하게 처리된 블랙의 캔버스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블루계열, 그린계열, 레드계열 등으로 작업하는 중이다)

창작에 있어 역 발상은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이며 이는 마치 깜깜한 동굴에서 빛을 더듬어 가듯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블랙의 화면에 흰색의 아크릴 물감으로 수십차례 지워내는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자연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최종의 캔버스 바탕색이 나뭇잎이 되고, 나무가 되고, 숲이 된다…

이러한 작업 방식은 아마도 막연한 재현을 위한 표현보다는 스스로 그러하다는 자연의 이치처럼 스며들듯이 자연스럽게 피어나기를 원했던 작가만의 독특한 표현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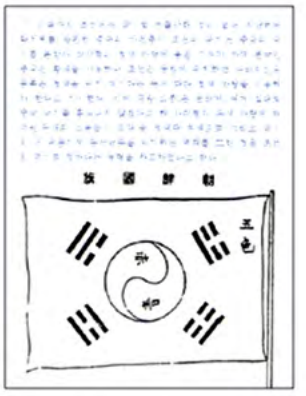
자신만의 신념, 자신만의 언어를 표현한 작품 앞에서 마음을 비우고, 무의미의 의미, 의미의 무의미로 차분해지며 편안함을 느껴 본다.

<작품소장>
Artered 갤러리 (뉴욕)
LoRoyer 갤러리 (몬트리올, 캐나다)
과천 현대미술관 미술은행
개인 소장 다수
현) LoRoyer gallery (Monteal, Canada) 작가

글: 권미선(한인미협회원)

지난 8월호에 기고자 최미선을 권미선으로 정정합니다.

문화재가 된 태극기



1882,10.2 시사신보기사

국제적십자 가입
국기나무 포스터

사람들은 태극기하면 태극기를 게양하는 국경일이나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 때 전 세계를 뒤덮은 태극기의 물결을 떠올릴 것이다. 그런데 태극기가 문화재로 등록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다. 태극기의 기원에 대해서는 조미수호통상조약설과 박영효설이 있다. 첫 번째는 1882년 5월에 강화도에서 있었던 조미수호통상조약 당시 태극기를 처음으로 만들었다는 가설이나 사실적 자료는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는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난 몇 달 후인 9월에 임오군란의 사후 수습차 일본 방문시 특명 전권대신 겸수신사로 임명되었던 박영효가 고종 임금의 어명을 받고 만들어 사용했다는 설로서, 국기를 처음으로 소개했던 1882년 10월 2일자 동경발행 『시사신보(時事新報)』의 기사 내용이나 박영효가 쓴 『사화기략(使和記略)』이라는 일기가 남아있어 현재로서는 문헌적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국기를 사용한 시대순에 대한 역사적 통계자료는 아직 없는 것 같다. 다만 제네바에서 부상병 구호를 위해 조직된 국제적십자위원회가 1863년부터 1913년까지 이 기구에 가입한 국가들을 기념하기 위해 '적십자가입 국기나무' 포스터를 만든 바 있었는데, 거기에 어림잡아 서른다섯 번째 순서에 태극기가 걸린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 국기 역사는 결코 타국에 뒤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국기를 맨 처음 만들어 사용할 때는 나라 명칭을 붙여 '조선국기'로 부르다가 그 후 도안의 형태에 따라 '태극기'로 부르게 되었고, 2007년에는 대한민국 국기법을 제정하면서 아예 국기 명칭을 '태극기'로 명문화시켰다. 1882년에 국기를 처음 만들어 사용하고 그 후 이듬해인 1883년 3월에 정식으로 국기선포를 하였으나 불행하게도 1910년 조선왕조가 일본에 의해 강제 침탈당하면서 국기인 태극기도 수난을 맞게 되었다. 그러나 태극기는 비록 나라를 잃었지만 나라와 국민의 정신적 지주로 각인되어 항일독립운동을 하는데 무혈의 무기가 되었다.

일본의 무자비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의연하게 맞서서 싸웠던 태극기의 힘은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이 기회와 함께 중국에 망명정부를 수립한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는 태극기를 대한민국의 국기로 채택하였다. 이처럼 일제강점기 태극기는 무기 대신 항일독립운동의 횃불이 되었으나, 일본에게는 눈엣가시이자 최우선적으로 처단해야 할 대상물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역사적 의미 때문에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여 새로운 국가 대한민국이 탄생하였을 때도 많은 법과 제도가 새로 만들어졌지만 국기만큼은 태극기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3·1 독립정신을 고스란히 이어받아 현재에 이른 것이다.

태극기가 처음 만들어진 역사나 그 후 일제강점기를 목숨으로 극복하고 승리한 자주정신의 고귀한 넋이 담긴 태극기가 2008년부터 문화재로 등록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18점에 이르고 있다. 문화재가 된 태극기의 유형을 크게 보면 태동기의 태극기, 일제강점기의 태극기, 6·25 전쟁사의 태극기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현존하는 태극기 중에 가장 오래된 데니(O.N.Denny) 태극기와 구한말 교육의 터를 일군 명신여학교 태극기와 동덕여자의숙 태극기를 보면 태동 당시의 제작 형태와 기법을 엿볼 수 있다. 조선왕조의 마지막 끝자락을 잡고 맞싸웠던 고광순 의병대장의 불원복 태극기, 3·1 만세운동 당시 다량의 태극기를 찍어내기 위해 만든 태극기 목판, 독립만세의 횃불이 된 남상락 자수태극기, 임시대한민국정부에서 긴박한 독립자금을 호소했던 김구 서명문 태극기, 영국인으로서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고 일본의 만행을 세계에 알렸던 배설(裵說, Bethell,E.T.) 유품 태극기, 대한독립만세 태극기, 대한민국임시의정원의 태극기, 승려신분으로 독립자금을 모금하다가 순국한 초월 스님의 진관사 소장 태극기, 한국광복군 서명문 태극기 등의 일제강점기 태극기에는 민족의 단결과 독립자주정신이 유전처럼 각인되기도 한다.

광복을 맞이하고서도 정치적 분열로 남과 북으로 갈라선 지 불과 4년여 만에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일컫는 6·25전쟁이 터졌다. 이때 대학생들은 학도병을 지원하여 전쟁터에 나섰는데 건국대학교법학도 서명문 태극기와 경주학도병 서명문 태극기에서는 비장한 승리의 각오를 눈물겹게 헤아릴 수 있다. 그런가하면 유관종 부대원 태극기와 이철희 사변폭발 태극기, 미해병대원 버스비어 태극기에서는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국기를 앞세워 불굴의 군인정신과 전쟁 없는 평화의 세상을 갈망하는 인류의 바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태극기는 여느 국기와 달리 역사적 시련과 애환을 담고 있어서 문화재 가치는 물론 우리 민족의 정신적 유물로 영원히 사랑받아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도 장롱 속에서 무심코 간직되고 있는 태극기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 역사와 함께하는 문화재로서 큰 빛을 발했으면 한다.

글: 송명호 (태극기전문가. 중부대학교 교수)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태극기>

우리 집 애완견, 쿠키 이야기

김 현 숙 / 시인, 한국문협 인니지부회원
cherub1005@gmail.com

쿠키, 격음의 연속 발음으로 다소 거칠게 들리지만 나지막이 부르면 목이 메어지도록 정답게 느껴지는 이름인 쿠키, 우리 집 강아지의 이름을 우리는 그렇게 부른다.

미니 핀셔(mini pincher)종으로 자그맣고 검은색 짧은 털이 쫑긋 선 귀의 둘레와 얼굴의 두 눈 밑 부분, 가슴과 배 그리고 네 발에는 초콜릿색의 털이 무성한 녀석이다. 눈 밑의 초콜릿색과 눈 주위의 검은 털 덕분에 얼핏 보면 안경을 쓰고 있는 듯 착각에 빠진다. 이 녀석의 먹성은 돼지와 맞먹는다. 먹다가 못 먹을 지경이 되어도 그냥 물러서지 않는다. 나머지 음식을 하나씩 물어다가 안전한 곳에 감춘다.

주로 식탁의 다리 옆, 딸아이 책상의자의 다리와 발을 잇는 부분 그리고 거실 문틀위에 슬그머니 올려놓는다.

제 딴에는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눈만 크게 떠도 단박에 보이는 걸 어찌하랴. 그래도 쿠키의 저축정신은 높이 살만하다. 나중을 대비하는 측면에서는 웬만한 사람 못지않기 때문이다. 또한 그의 사교성은 혀를 내두를 정도다.

놀이터 주변으로 산책을 나갈라치면 현관문 앞에서 먼저 기다린다. 놀이터의 아이들이 쿠키를 빙 둘러싸고 쓰다듬는 등의 애정을 보이면 바로 잔디위에 누워 그들의 애정사례를 인내 있게 받아준다. 심지어 반짝거리는 눈을 게슴츠레 감으며 그들의 앙증맞은 손가락이 주는 사랑을 한껏 즐긴다. 집에 손님이라도 오면 누군지 확인을 해야 직성이 풀리고 그게 누구이든 이내 그에게 달려가 무릎에 앉혀 달라 조른다. 간혹 강아지를 달가워하지 않는 지인들이 올 경우 방문을 닫아 두기라도 하면 보채며 짖는 통에 성가시기도 하다.

개와 고양이를 좋아하신 할머니 덕에 어릴 적부터 동물들은 식구인 듯 아닌 듯 주변에 넘쳤다. 딱 한 번 정을 들인 개가 멀리로 팔려가던 날, 크게 충격을 받고 나는 마음의 문을 닫아 버렸다. 모르는 아저씨가 개를 데리고 사라진 길 쪽을 바라보며 며칠을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그 후론 강아지든 고양이든 관심을 두지 않았다. 두 아이가 자라면서 노래하듯이 강아지를 키우자고 해도 마음의 빗장은 쉬 열리지 않았다. 지나는 길에 애완동물과 마주치면 그들의 앙증맞음과 귀여움에 잠시 한 눈을 팔아본 적은 있지만 한 울타리 안에서 동고동락한다는 것은 꿈에서도 생각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던 중 큰 아이가 군에 가기 위해 인사차 자카르타에 들렀을 때 남편의 지인이 살고 있는 가룻(garut)으로 가족여행을 갔다. 2박3일중 마지막 저녁은 그 곳에서 사료공장을 하는 지인의 초대로 그 집에 가게 되었다.

공장의 마당으로 들어서자 여러 마리의 큰 개들이 무섭게 짖으며 우리를 경계했다.

인니에서 큰 공장을 하는 한국 사람들이 그렇듯이 경비강화 차원에서 많은 개를 키우고 있었다. 삼겹살에 소주를 곁들이며 식사를 마치고 소파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어디선가 두 손에 꼭 들어갈 만큼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기괴한 걸음걸이로 지인의 부인 쪽으로 다가가더니 곧 부인의 무릎에 안겼다. 강아지의 아픈 다리에 대해 물으니 얼마 전에 코브라가 공장마당까지 올라 와 그곳에 있던 강아지를 물어 그렇게 되었다고 했다. 태어난 지 겨우 2개월 된 두 마리의 강아지 중 한 마리는 물린 직후 죽었고 이 녀석은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오른쪽 뒷다리가 기역자로 꺾이는 불구가 된 것이라고 하였다. 측은한 마음에 딸아이는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런 딱한 처지임에도 해맑은 얼굴로 주인의 품에 안겨 있는 강아지의 표정은 우리의 애처로운 마음을 더 자극했다. 딸아이가 안고 한참을 어르자 남편의 지인은 데려다 키우겠냐고 물어왔다. 그러자 가족들의 시선이 모두 나에게 쏟아졌다.

그간 완강히 버티던 엄마의 동정심에 한줄기 희망을 건 표정들이었다. 순간 머뭇거릴 틈도 없이 '정말요?' 하고 묻는 내 자신에 가족들은 물론 나조차도 놀라고 말았다. 아들은 연신 엄마의 심경변화에 놀라워했고 딸아이는 감사하다는 말을 수십 차례하며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다. 다음 날 아침 호텔에서 나와 강아지를 데리러 가겠다고 지인에게 전화를 했다. 그러나 어제와는 다른 답변이 돌아왔다. 아직 너무 어리니 더 키운 후 주겠다는 거였다. 가족들의 실망은 말할 것도 없고 딸아이는 서운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이게 무슨 감정인지, 소풍가는 날 아침 빗소리를 들은 듯 절망감과 끈을 놓치고 날아가는 풍선을 바라보며 울먹이는 아이의 마음과 흡사한 감정이 엄습해 왔다.

다음날 아들은 한국으로 떠났고, 홀로 남은 딸아이는 강아지를 손에 쥐었다 놓친 안타까움과 오빠가 떠난 상실감에 처량해 보이기까지 했다. 그 이후로 며칠 동안 눈앞에 삼삼한 가룻의 강아지 모습에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다.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인터넷을 뒤져 미니핀 분양하는 곳을 찾기 시작했다. 드디어 마땅한 분양자를 찾았고 온 가족이 설레는 마음으로 그 집을 방문했다. 주인은 우리를 거실로 안내하더니 가룻에서 보았던 크기의 미니핀 네 마리를 데리고 나왔다.

그리고는 강아지들에게 죽을 먹이며 맘에 드는 녀석을 고르라고 하였다.

동그란 밥그릇을 가운데 두고 빙 둘러서 부지런히 핥아 먹는 강아지들 중 한 놈이 유난히 눈에 들어 왔다. 두 뒷다리를 들고 거꾸로 박혀 죽을 먹고 있는 녀석, 바쁜 와중에도 옆 강아지를 으르렁거리며 견제하는 모습에 피식 웃음이 나왔다. 잘 먹으니 건강하다는 증거고 인물 또한 똘똘해 보이니 다른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 우리 모두 이구동성으로 그 강아지를 지목했고 다행히 원하던 대로 암놈이기도 했다.

그로부터 녀석은 '쿠키' 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호적에 올려졌다. 우리의 예상대로 잘 먹고 혹독한 배변훈련도 잘 견디며 무럭무럭 자랐다. 우리 집에 온 지 이틀 만에 딸아이가 쿠키를 안아 올리다 떨어뜨린 적이 있었다. 자기 잘못으로 강아지가 죽게 생겼다며 호들갑을 떠는 딸을 재우고 그날 밤은 쿠키를 안고 소파에서 세웠다. 잘 못 될까봐 불안하여 혼자 내버려 둘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 애들에게도 못 보여준 모성애의 절정이었다. 그날 밤 쿠키에게 쏟은 애정을 고스란히 느낀 듯 쿠키는 나를 부쩍 더 따랐다. 이때부터 딸아이는 두고두고 쿠키와 제 어미 사이를 질투하곤 했다. 아들의 첫 휴가 때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군에 있는 아들에게 쿠키의 자잘한 일상에 대해 전하자 아들은 무척이나 쿠키를 보고 싶어 했다.

아들과 쿠키와의 첫 만남은 기묘했다. 그토록 쿠키에 대해 궁금해 하던 아들보다 쿠키가 더 반갑게 맞이한 것이다. 아들이 현관문을 들어서자 쿠키는 그의 바짓부리에 제 코를 대고 벌름거리며 이내 꼬리를 흔들고 발길을 떼어놓기 힘들 정도로 아들을 쫓아 다녔다. 입양되어 오자마자 방안에 밴 아들의 냄새를 기억해 내고는 6개월도 더 지난 후에 돌아온 그 냄새의 주인공을 알아 본 것이었을까?

그렇게 우리와 산지 2년 6개월,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히 한 틈을 타 장염에 걸린 쿠키는 그 어린 나이에 서둘러 가 버렸다. 갑작스런 쿠키의 죽음은 우리 가족에게 너무 큰 충격을 주었다. 가족 모두 쿠키로 인한 상처를 서로에게 전이시키지 않기 위해 한참을 노력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가슴에 묻는다' 는 말이 이해가 되었다. 요즘 나는 이상한 버릇이 생겼다. 아침 다섯 시 반쯤 들려오는 새 소리에 눈이 떠진다. 어느 날 문득 그 소리를 듣고 잠이 깼는데, 매일 아침 이 시간쯤에 우리 부부의 침실 문을 두 발로 긁어대며 저음으로 컹컹대던 쿠키의 짖는 소리와 나를 깨운 새 소리가 중첩되면서 혹시 저 새가 쿠키가 아닐까?

아니 정확히, 쿠키가 새가되어 우리 집을 찾아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이다.....

이 표현이 맞나요 ?

글: 최서혜

3. Pinjam의 쓰임은? "이것 좀 빌려주세요?"...'빌려주다'와 '빌리다'의 차이 짚어보기

한인 커뮤니티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나름 머리 아픈 고충 가운데 하나는 고용인인 기사나 식모들이 월급을 가불해 달라거나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 때 쓰이는 단어 'Pinjam(삔잠)' 을 어떻게 쓰는 게 맞을까?

'빌리다' 는 Pinjam 이라는 동사 원형(Kata dasar, kata verba)에서 온다. 이 원형에서 접사가 어디에 붙는지에 따라 의미가 180도 다르니 주의해야 한다. 일상 회화에서는 pinjam만으로도 쓰지만 정확한 의미파악을 위해서는 접사를 알아두는 것이 좋다.

주어가 빌려주는 것은 → meminjamkan(me + pinjam + kan) = 빌려주다
주어가 빌리는 것은 → meminjam(me + pinjam) = 빌리다

#상황 1: 퇴근하는데 운전기사가 쑥스러워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한다.
A : Bos(Mr.), Bolehkah Saya meminjam uang sebesar Rp. 500.000,– (Lima ratus ribu rupiah)? Istri Saya sedang dirawat di rumah sakit.
사장님(미스터), 제가 50만 루피아를 빌릴 수 있을까요? 제 아내가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에요.
B : Oh, Iya? Nanti Saya meminjamkan setelah kamu pulang kerja. (아, 그래? 일 끝나고 줄게.)
B' : Maaf. Saya tidak bisa meminjamkan uang kepada Anda. (미안, 도와줄 수 없어.)

또, 보통 Pinjam은 대가가 없이 무료로 빌려주는 의미가 강하지만 돈을 지불하고 빌리는 것은 렌탈의 의미가 있는 Sewa를 쓴다. 그러나 돈을 빌리는 경우는 Pinjam이 맞다. Sewa의 경우에도 접사에 따라 의미가 전혀 다르다.

주어가 빌려주는 것 → Menyewakan (me + sewa + kan) = 임대를 해주다, 빌려주다
주어가 빌리는 것 → Menyewa (me + sewa) = 임대하다, 빌리다
Pemilik(yang menyewakan, 주인 또는 빌려주는 사람)↔ Penyewa(임차인, 빌린 사람)

#상황 2: 렌트할 아파트를 찾는 A씨에게 B씨가 아파트에 대해 조언한다.
A: Saya sedang mencari apartemen yang siap disewakan. (저는 지금 임대할 아파트를 찾고 있어요.) **disewakan은 menyewakan의 수동태
B: Di apartemen ini banyak unit kosong, bisa kontrak langsung dengan pemiliknya. (이 아파트에 빈 유닛이 많아요, 집주인과 바로 계약도 가능해요.)

4. 전화 할 때, 전화가 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전화한 사람을 물어보자. 전화를 걸게 되면 우선 자기가 누군지 밝히는 것도 예의다.

#상황 1: PT. Hankuk의 미스터 김이 PT. Inko에 전화를 걸어 미스터 박을 찾는다. 그런데 미스터박이 자리에 없고 비서가 받았다.
A: Selamat Siang? Saya Mr. Kim dari PT. Hankuk, Bisa bicara dengan Mr. Park?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회사의 미스터 김인데, 미스터 박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B: Siang, Dia sedang tidak ada di tempat.(=Dia sedang keluar.)
(안녕하세요. 지금 미스터박은 자리에 안 계십니다.)
B' : Dia sedang online.
(지금 통화 중이십니다.)

#상황 2: 미스터 박이 바로 전화를 받았다.
A: Selamat Siang? Saya Mr. Kim dari PT. Hankuk, Bisa bicara dengan Mr. Park?
C : Saya sendiri. (접니다.=제가 미스터 박이에요.)

#상황 3: 한참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린다.
A : Halo? (안녕하세요?)
B' : Halo, Ini nomor Mr. Kim, ya? (안녕하세요? 미스터 김 번호 맞나요?)
A : Ya, Benar. Saya sendiri, maaf ini dengan siapa ya? (네 맞아요. 전데요. 죄송한데 누구시죠?)
B : Ini Park dari PT. Inko. Saya mau tanya tentang meeting besok.
(저는 인꼬의 미스터 박입니다. 내일 미팅 건에 대해 여쭤볼 것이 있어서요.)
A: O, gitu. Maaf Saya lagi sibuk. Bapak, bisa telpon balik ke saya nanti?
(아, 그러시군요.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바빠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주실 수 있나요?)
A' : O, gitu. Maaf Saya lagi mau keluar. Nanti saya hubungi lagi(=Nanti Saya nelpon lagi.)
(아, 그러시군요.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나가봐야 해서요. 나중에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상황 4: 김씨가 박씨에게 전화를 했는데, 부재 중이다. 비서에게 메시지를 전달해달라고 부탁한다.
A : Selamat pagi. Ini Kim dari PT. Hankuk. Mr. Park ada di tempat, ga?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미스터김입니다. 지금 미스터 박 계신가요?)

B : Dia sedang meeting di luar kantor. Apa ada pesan untuk Mr. Park?
(지금 외부 미팅 가셨어요. 미스터 박에게 전달할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A : Ya. Tolong sampaikan pesan saya untuk dia, bahwa Saya sudah kirim dokumen penting lewat e-mail.
(네. 제가 중요한 서류를 이메일로 보냈다고 전해주세요.)

**대화에서 마지막에 'Ya' 를 쓸 때는 부탁할 때는 약간 길게 쓰면 공손한 이미지를 준다. 짧게 쓰면 약간 단호하면서도 불친절한 인상을 준다.

아하! 알쏭달쏭 표현 제대로 알기

-Malam Minggu와 Minggu Malam의 차이는?

#상황 1: B에게 토요일 밤에 영화보러 가자고 말하려던 A. 그런데 뭔가 틀렸다?
A: Ayo, ke bioskop Minggu malam ini.
(밍구 말람에 우리 영화보러 가자.)
B: Katanya ada acara keluarga pada hari Minggu sore?
(너 일요일 저녁에 가족 행사 있다고 했잖아.)
A: Minggu malam itu artinya Sabtu sore, bukan?
(밍구 말람이 토요일 밤 아니야?)
B: Bukan. Minggu malam itu artinya sore hari minggu. Kalau malam minggu itu Sabtu malam.
(아니야. 밍구 말람은 일요일 저녁이라는 뜻이야. 말람 밍구는 토요일 저녁이라는 뜻이고.)
**Malam Minggu는 토요일 밤, Minggu Malam은 일요일 밤을 의미한다.

◇ 자카르타 홀짝제 시행이 2016년 8월 30일부터 시작된다.
#상황 1: 출근길 차 안에서 A가 운전기사 B에게 홀짝제에 대해 묻는다.
A : Hari ini tanggal berapa ya, pak? (오늘이 몇 일이죠?)
B : Hari ini tanggal 30, pak. (오늘은 30일입니다.)
A : O, Iya. Kayaknya sistem ganjil-genap dimulai hari ini ya pak? (아, 그렇군요. 오늘부터 홀짝제가 시행되는 것 같은데요.)
B : Berarti Kita tidak bisa lewat Jalan Sudirman karena nomor akhir plat mobil kita 5, ganjil.
(그럼, 저희 차는 오늘 수디르만을 못 지나가겠네요. 우리 차량 뒷 번호가 5로 홀수라서요.)
A : Kalau begitu, Kita lewat jalan belakang saja.
(그렇다면, 뒷 길로 갑시다.)

**Ganjil은 홀수(1, 3, 5 …)이고, Genap은 짝수(2, 4, 6…)다. 자카르타주정부가 시행하는 홀짝제는 'Sistem Ganjil-Genap' 이라고 부른다. 홀수날엔 차량 번호 맨 뒷자리가 홀수인 차량이 통행하고, 짝수인 날은 차량 번호 맨 뒷자리가 짝수인 차량이 수디르만, 가똣수브로또, 땀린 등 일부 도로에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시~10시, 오후 4시~8시까지 통행할 수 있다.

일상에서 부딪히는 법률 상의 궁금증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쉽고 자세하게 풀어보자

아파트, 주택 또는 상가 임차인의 권리 (Hak-hak Penyewa Apartemen, Rumah atau Rukan)

Q1. 저는 Cempaka Putih에서 10년째 같은 Rukan을 임대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부로 2년 재 계약을 하여서 계약기간은 아직도 1년 10개월이나 남아 있는데 어제 갑자기 건물을 새로 매입한 주인이라며 저희에게 9월 말까지 이전하고 임대료 잔액은 돌려 주겠다고 합니다. 아직 진행중인 프로젝트 주소도 이 곳으로 되어서 계약 기간까지는 이 Rukan을 사용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 전 건물주와 계약시 향후 건물이 매각되면 임대계약은 종료된다는 특약이 없었다면 귀하께서는 계약 기간 종료 시까지 인 2017년 6월 30일까지 Rukan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민법 제 1576조에는 하기와 같이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Dengan dijualnya barang yang disewa, sewa yang dibuat sebelumnya tidak diputuskan kecuali bila telah diperjanjikan pada waktu menyewakan barang. Jika ada suatu perjanjian demikian, Penyewa tidak berhak menuntut ganti rugi bila tidak ada suatu perjanjian yang tegas, tetapi jika ada perjanjian demikian, maka ia tidak wajib mengosongkan barang yang disewa selama ganti rugi yang terutang belum dilunasi.”

Q2. 저는 Cibubur에서 살고 있는 김선량입니다. 주택을 2년 임대 계약하여 이제 겨우 6개월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어제 방문하여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2년차부터 년 Rp10,000,000 인상한다고 제게 통보하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억울한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A : 한국의 경우에는 임대차 보호법 상 최소 1년 이내에는 임대료를 인상하지 못하고 인상폭도 원래 임대료의 20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구체적인 임차인 보호 규정이 있으나 인도네시아 특별법에서는 임대차 관련 특별법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 정부령 1994년 제 44호에 (PP No.44 Th 1994 tentang Penghunian Rumah oleh Bukan Pemilik) 민법 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선량씨의 경우 민법 제 1548 그리고 정부령 1994년도 제 44호의 제 17조에 의하여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 요청은 무시하고 지불하지 않고서 잔여기간을 사용하면 됩니다.

2005년 대법원 판례(Putusan Mahkamah Agung No.2506K/Pdt/2005)에서도 상기와 같은 경우 임차인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Q3. 저는 남부 자카르타의 한 아파트를 임대하여 사용중 다른 Unit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경찰과 소방서에서 사고 원인 규명과 건물 안전 진단을 위하여 Police Line을 설치하여 부득이 타 아파트를 임대하여 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화재 난 아파트에서는 임대 잔여 기간이 8개월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잔여 기간의 임대료를 반환 받을수 있을까요?

A : 상기 2번째 답변에서도 설명 드렸듯이 모든 임대차 계약의 기본은 민법 제 1548조(Pasal 1548 KUHPer)와 그리고 계약을 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 1320조 (Pasal 1320 KUHPer)그리고

특별하게 아파트 관련하여 법률 2011년 제 20호 (Undang-Undang Rumah Susun 다층가옥법 – UURS) 과 정부령 1988년 제4호 (PP No.4 Tahun 1988)에서 관련 규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화재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임대차 관계를 지속하지 못할경우 임대인은 잔여 임대료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든가 아니면 50%만 지불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없는 경우 임대인(소유주)은 반드시 잔여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계약의 주된 내용인 아파트를 사용/유익 할 수가 없으며 그 책임이 임차인에게 귀속하는 사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 1565조/ Pasal 1565 KUHPer)

화재로 인하여 입은 기타 가재도구관련 손해는 아파트 관리단(Badan Pengelora)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부령 1988년 제4호 (PP No.4 Tahun 1988) 제 70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Perhimpunan Penghuni)는 아파트를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Tips 1. 정부령 1988년 제4호 (PP No.4 Tahun 1988 tentang Rumah Susun) :

이 정부령은 최초의 아파트법인 법률 1985년 제16호 즉 Undang-Undang No 16 Tahun 1985 tentang Rumah Susun (다층가옥법 – UURS)의 정부 시행령이었으나, 그 이후에 다층가옥법이 법률 2011년 제 20호 (Undang-Undang Rumah Susun)로 개정 되었으나 현재까지 정부령은 현실에 맞게 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Tips 2. 정부령 1994년 제 44호에 (PP No.44 Th 1994 tentang Penghunian Rumah oleh Bukan Pemilik) 우리 나라의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유사한 정부령으로 1992년 주택 및 정착에 관한법 (Undang-undang Nomor 4 Tahun 1992 tentang Perumahan dan Pemukiman)에 근거한 정부 시행령이다.

작성 : 김 종성 (대표 Partner)
법무법인 인도양 (Indoyang & Partners)
cskim@indoyanglaw.com

인도네시아 민법(8)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centrin.net.id
YSM & PARTNERS

10. 양도담보권(Akta Jaminan Fiducia)

양도담보권은 민법전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양도담보에 관한 법률 1999년 제42호로 규정하고 있으나 질권 및 토지건물 저당권과 함께 기업 과 개인 사업자의 경제활동, 특히 사업에 필요한 자금 확보에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이므로 함께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양도담보란 담보물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임시로 양도하는 방법에 의한 물적담보 를 말한다. 담보를 하려는 물건의 소유권을 양도담보권 등기증서에 의거 서류상으로 임시로 채권자에게 넘겨줬다가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상환 하면 소유권을 다시 반환받는 방법에 의한 담보이다.

담보물은 계속해서 채무자가 관리 혹은 이용하며 담보물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해도 모두 채무자 책임이다. 채무자가 약정한 기간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양도 담보물이 자동으로 양도담보권 보유자의 소유 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양도담보권 보유자는 양도 담보물을 공매 처분하여, 자기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 받고, 남은 공매대금은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인도네시아 양도담보권의 특징은 양도 담보물을 부동산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으며, 동산에 대해서만 허용하며, 인도네시아 영토 밖에 있는 동산에 대해서도 양도담보권을 인정하며, 기발생 채권, 미래 발생할 채권 및 채권채무 확인서 혹은 융자계약서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채권으로 공매 집행 시 계산이 가능한 채권까지도 허용하고 있다. 양도담보권 등기증서는 법원의 최종확정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확실한 채권확보 방법이다,

10.1. 양도담보권의 원칙

10.1.1. 양도담보권 보유자/채권자는 진정한 의미의 소유주가 아니며 양도 담보권을 채권이 변제시까지 소유권을 임시로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10.1.2. 양도 담보권은 양도 담보권 제공자/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만 집행이 허용된다.

10.1.3.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완료시에는 양도 담보권 보유자는 양도 담보권 등기를 해제해야 하며 양도담보물의 소유권은 자동으로 채무자에게 돌아간다.

10.1.4. 채무자가 약정한 기한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양도담보권 보유자/채권자는 양도 담보물을 공매할 수 있다. 공매한 대금이 채무액보다 많으며, 양도 담보권 보유자는 자신의 채권액을 변제 후 남은 금액은 반드시 채무자에게 넘겨줘야 한다.

10.2. 양도담보권 기본조건

10.2.1. 채권채무를 발생시키는 모문서가 있어야 한다.

양도담보 증서는 모문서가 없으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못하는 모문서에 종속하는 문서이므로 양도담보증서를 만들려면 반드시 먼저 채권채무를 규정한 모문서가 있어야 한다. 금전차용 계약서, 매매계약서, 채무확인서 등이 모문서이다.

10.2.2. 양도담보권을 제공하는 채무자가 양도 담보물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소유권 혹은 보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0.2.3.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양도담보증서를 작성해야 한다.

10.2.4. 양도담보증서를 반드시 법정 등기소에 등기해야 한다.

10.3. 양도담보권이 허용되는 물건

10.3.1. 법적으로 양도가 가능한 유형 혹은 무형 동산
10.3.2. 재고 원부자재 혹은 제품
10.3..3. 외상매출채권
10.3.4. 담보권 설정을 불허하는 부동산
10.3.5. 양도담보물에서 발생하는 수익
10.3.6. 양도담보물에서 발생하는 보험금

10.4. 양도담보 허용 물건소재지

10.4.1. 인도네시아 영토 내 소재 물건에 대해서도 허용되며,
10.4.2. 인도네시아 영토 외 소재 물건에 대해서도 허용된다.

10.5. 양도담보권이 허용되는 채무

10.5.1. 기발생한 채무
10.5.2. 미래 발생할 채무
10.5.3. 채권채무 계약서 약정에 따라 공매 집행 시 계산이 가능한 채무

10.6. 양도담보권 불허 물건

10.6.1. 담보권 설정이 가능한 부동산
10.6.2. 20㎥ 이상의 선박
10.6.3. 비행기
10.6.4. 저당권

10.7. 양도담보권 증서

반드시 인도네시아어로 인도네시아 공증인 앞에서 공정증서로 작성해야 하며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7.1.양도 담보권 제공자 및 보유자 인적사항

개인은 성명, 성별, 출생지, 생년월일, 직업, 종교, 결혼여부, 국적, 주소를 기재해야 하며, 법인은 법인명, 설립지국가법, 현존여부, 법정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10.7.2. 공증인 성명, 작성지, 작성일, 증서번호
10.7.3. 채권채무 확인서/계약서에 대한 데이터
10.7.4. 양도담보물에 대한 설명
10.7.5. 양도담보 가액
10.7.6. 양도담보물 가치 표시
10.7.7. 양도담보권 제공자가 개인 기혼자인 경우에는 제공자의 배우자의 동의서가 있어야 하며,
10.7.8. 제공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체 발행주식 3/4이상 주주가 참석한 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3/4이상의 찬성 결의에 근거해 법인의 대표이사가 집행한다.

10.8. 양도담보권 등기

10.8.1. 양도담보권을 법정 등기소에 등기하지 않은 양도담보권은 집행효력이 없다, 따라서 양도담보권은 등기소에 등기는 필수 사항이다.
10.8.2. 등기소는 등기 신청일자로 양도담보권 등기권리증을 발급하며 등기 신청일로 양도담보권 효력이 발생한다.
10.8.3. 양도담보권 등기권리증 서두에 " Demi Keadilan Berdasarkan Ketuhanan Yang Esa " (유일 전지전능하신 신성에 근거한 하여 공정을 위하여)라는 문구가 적혀 있으며, 양도 담보 등기 권리증은 법원의 확정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 법원의 확정판결문이란 강제 집행할 수 있는 판결문이라는 뜻이다.
10.8.4. 양도담보권에 변경 사항이 발생 시는 변경된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10.9. 한 물건에 대하여 복수 양도담보권 설정 가능 여부

양도 담보권법의 몇 향에 한 물건에 대하여 복수 양도담보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의미를 주고 있어서, 한 물건에 대하여 복수 양도담보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양도담보권의 본질 자체가 임시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인데, 한 번 이전해준 것을 다시 제 삼자에게 이전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양도 담보권의 본질에 위배되는 의견이 됨으로, 필자는 한 물건에 대헌 복수 양도담보권 설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한 물건에 대한 양도담보권 설정은 한번만 가능하다고 본다.

10.10. 양도담보권 집행

양도담보권 제공자/채무자가 채무를 약정한 기일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 양도 담보권 보유자/채권자는 양도 담보물을 공매할 수 있다. 양도담보권법에 양도담보권 보유자는 양도담보물을 공매하는데 법원의 공매 집행허가서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공매를 담당 하고 있는 국가기관인 공매원에서 법원의 압류허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법원의 압류집행을 거부하는 양도담보권 제공자가 저항 소송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저항 소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상 기각된다.

10.11. 수의 계약

양도담보권 보유자가 다음에 열거한 조건들을 충족시키면 수의 계약을 허용한다.

10.11.1. 양도담보권 제공자/채무자와 양도담보권 보유자/채권자 간에 수의계약 사전 합의가 있어야 한다.

10.11.2. 수의계약 매각 가액이 관계 당사자에게 유익을 주는 최고 가격이어야 한다.

10.11.3. 양도 보권 제공자와 보유자는 관계 당사자에게 수의계약 사실을 수의계약 최소 한 달 전에 서면으로 사전에 통지 해줘야 한다.

10.11.4. 지역 주요 일간지 두 곳에 매각공고를 매각 시행 최소 한 달 전에 공고해야 한다.

10.12. 채권 양도 시 양도담보권도 양도

양도담보권 보유자가 채권을 제 삼자에게 양도하면 양도담보권도 채권을 양도받은 제 삼자에게 자동으로 양도된다. 그 이유는 양도담보권은 채권에 대해 종속관계이기 때문이다. 양도담보권을 물려받은 채권자는 양도담보권 보유자 명의 변경을 등기소에 신고하여 등기사항 변경을 받아야 한다.

(다음 호에 계속)

[리우 2016]남북 체조선수 셀카 사진, 진정한 올림픽 정신 구현

2016 리우올림픽 여자체조에 출전한 남북한 여자 선수들이 나란히 서서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는 모습의 사진 한 장이 매우 현대적인 방법으로 "스포츠를 통한 인류의 조화로운 발전" 이라는 올림픽의 정신을 진정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부르고 있다고 미 CBB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남북한 체조선수들, 올림픽에서 잠시나마 하나로 뭉치다'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이은주 선수와 북한의 홍은정 선수가 지난 7일 리우 올림픽 아레나에서 나란히 서서 셀카를 찍고 있는 사진을 소개하면서, 이는 남북한의 선수들로서는 좀처럼 갖기 힘든 기회라고 전했다.

CNN은 전쟁을 치렀던 남북한은 휴전협정이 발효 중이지만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전쟁 중이며 여전히 높은 긴장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측 간 국경은 세계에서 가장 요새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올림픽 현장에서 이러한 지정학은 한때나마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남북한의 두 선수는 리우 올림픽 아레나의 훈련장에서 즐거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다 나란히 서서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는 장면을 연출했다.

한국의 이은주 선수는 이번이 첫 올림픽 출전인 반면 북한의 홍은정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여자 도마 종목에서 북한에 첫 체조 금메달을 안겨준 베테랑 선수이다.

국제문제 전문가이자 싱크탱크 유라시아그룹의 이언 브레머 회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두 선수의 사진과 함께 올린 글에서 "남북한 선수들이 함께 한 이 사진이야말로 우리가 왜 올림픽을 치르는지를 보여준다" 고 말했다.

dbtpwls@newsis.com

‘환경·생태’ 남미 최초 올림픽 성화 꺼지고 ‘2020년 도쿄’ 기약

▲ 리우올림픽 폐회식 모습 (사진=연합뉴스)

남미 대륙에서 처음 열린 올림픽이 17일간의 열전을 마감했습니다.

제31회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 폐막식이 한국시간으로 오늘(22일) 오전 브라질 리우의 마라카낭 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6일 마라카낭에서 타오른 성화가 잦아들면서 지구촌 스포츠 가족은 4년 뒤 도쿄올림픽에서 재회를 기약하고서 작별의 정을 나눴습니다.
리우 대회에는 올림픽 무대에 처음 오른 코소보, 남수단을 포함한 206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회원국에서 참가했습니다.

각국 선수 1만 1천여 명은 28개 종목 금메달 308개를 놓고 기량을 겨뤘습니다.

‘새로운 세상’ (New World)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대회에는 세계 난민으로 구성된 ‘난민올림픽팀’이 사상 처음 참가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치안 불안과 시설 미흡, 국민 무관심 등이 우려된 리우올림픽은 큰 탈 없이 잘 마무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개회식은 브라질 역사·문화와 함께 아름다운 생태 보전의 필요성을 강조한 퍼포먼스로 세계인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행사 비용은 역대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개회식 주제인 친환경과 생태계 보호 정신은 3시간가량 진행된 폐회식에서도 강조됐습니다.

폐회식 직전 폭우가 쏟아졌고, 폐회식이 끝날 때까지 강풍이 이어졌지만 '세계인의 축제'를 마음껏 즐긴 선수들과 관중의 흥을 방해하진 못했습니다.

폐회식은 여느 대회와 마찬가지로 나라별로 줄지어 입장하는 개회식과 다르게 진행됐습니다.
선수들이 자유롭게 경기장에 들어서 리우에서 만들어낸 감동 순간을 되돌아보고 재회를 약속했습니다.

한국선수단 기수는 레슬링 동메달리스트 김현우가 맡았습니다.

카이고 등 세계적인 DJ들이 흥겨운 곡을 연주한 뒤 다시 한 번 환경보호의 메시지를 담은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의 폐회 연설이 끝난 뒤에는 브라질 최고의 카니발 연출자들이 화려한 삼바 축제가 마라카낭 주경기장에서 재현됐습니다.

리우시의 공식 노래인 '기적의 도시'가 울려퍼지는 가운데 형형색색의 옷을 입은 삼바 무용수들이 경기장을 삼바 축제의 장으로 바꿨습니다.

2020년 하계올림픽 개최지인 도쿄 대회 조직위원회는 8분짜리 공연과 함께 4년 뒤 펼쳐질 지구인의 축제를 예고했습니다.
폐회식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참석했습니다.

대회 기간 IOC 선수위원으로 선출된 탁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유승민은 다른 3명의 신임 선수위원과 함께 전 세계에 인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금메달 10개 이상을 따내 종합 순위 10위 안에 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금메달 9개, 은메달 3개, 동메달 9개로 종합 순위 8위를 차지해 절반의 성공을 이뤘습니다.

Indonesian Heritage Society

2016년 9월 헤리티지 정기총회 행사 안내

일시: 2016년 9월 14일(수) 9시~12시
장소: 네덜란드 대사관 에라스무스 하우스

헤리티지 회원간의 친목 도모를 위해 연간 가장 크게 개최하는 SELAMAT DATANG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외국인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날오시면 많은 헤리티지 영어 행사나 그룹 모임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전통 춤 공연이 함께하며 회원 가입을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주최 : 인도네시아 헤리티지 소사이어티

2018년 헤리티지 달력 사진전 개최
(IHS Calendar Photo Competition)

주제 : Indonesia at Play
문의 : info@heritagejkt.org 021) 572 -5870
마감일: 2018년 2월 중

Indonesian Heritage Society

<헤리티지 역사 문화 탐방>

해외 건설현장 연수단 자카르타 방문기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해외시설물건설과 1학년 박도현

해외 건설현장 연수단은 40명의 학생과 5분의 교사로 구성되어 지난 8월 8월 10일~13일 3박 5일의 연수 기간 중 셋째 날까지 해외 건설현장을 견학하고, 8월 13일 헤리티지 인도네시아 역사문화탐방을 함께하게 되었다. 먼저 우리는 헤리티지 유물해설가 두 분과 함께 국립박물관에서 인도네시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의 내부는 웅장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였다. 많은 현지 학생들이 견학을 와 있었는데, 같은 교복을 입은 많은 단체들과 마주친 것이 인상 깊었다.

인도네시아의 전통 직물이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직물에 비해, 인도네시아는 다양한 문양으로 화려한 느낌을 내려고 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느꼈다.

중국으로 가던 배가 가라앉아 당시 배에 실려 있었던 금품과 도자기들에 대한 설명은 너무나도 흥미로웠다. 많은 도자기가 바다에서 발견되어 산호초와 조개와 함께 발견되어 신기해보였다. 평소 고대 무기에 관심이 많던 나에게 그곳에 전시되어 있던 칼들은 큰 관심을 가지게 하였다. 크리스라고 불리는 장검은 보석으로 치장하여 더욱 특별하고 값진 물건으로 보였다.

국립 박물관 치고는 크지 않은 규모였지만 여유롭게 돌아볼 수 있었기 때문에 즐거웠고 특히 그곳에서 우리를 아주 반겨주던 어린 인도네시아 아이들이 좋은 추억이었다고 모든 연수단원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그리고 자카르타의 랜드마크 모나스 타워에 방문하였다. 모나스 타워는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였고, 모나스 광장 내부를 순환하는 코끼리 열차를 타지 못해 조금 아쉬웠다. 모나스 타워 내부는 덥긴 하였지만 인도네시아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재현해 놓은 모형들을 보면서 설명을 들으니까 재미있었다. 한국에서 보던 마천루들 보다 더 높은 모나스 타워에서 사진을 찍으며 시간을 보내니 의미가 있었다.

흐릿하지만 드넓은 모나스 타워 앞의 공간과 하늘을 찌르는 모나스 타워의 위엄을 잘 보여주는 사진이다. 모나스 타워를 처음 봤을 때 저 꼭대기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생각했으니 아쉽게도 그럴 기회는 오지 않았다.
지하 역사박물관은 아주 잘 꾸며놔서 볼만했다.

이슬람 사원에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 반바지나 반팔 착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원에서 빌린 가운을 착용해야 해서 너무 더웠다.

그 밖에 동양 최대 이슬람 사원인 이스티끄랄 사원 다녀온 것도 기억에 남는다. 기도장소는 여자와 남자의 구별이 뚜렷했고, 경건할 줄 알았던 사원의 분위기가 생각보다 너무 자유스러워서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기억에 남았던 곳은 카페 바타비아와 파타힐라 광장이다.

바타비아 광장의 모습이다. 우리나라의 명동과는 달리 상당히 깨끗한 모습이었고 각종 다양한 기념품들을 판매하였다. 그리고 그곳의 많은 상인들이 연맹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신기했다.

카페 바타비아이다. 이곳의 음식은 인도네시아의 물가에 비해서 비싼 편이었다. 남자 화장실의 디자인이 특이해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인도네시아의 헤리티지 유물해설가 분들과 만나 인도네시아의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한국에서 온 우리에게는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2016 한인회 임원골프대회 및 한인뉴스 20주년 창간 행사 찬조 리스트

*가나다순

번호	성명	찬조품	수량
1	강형구	아이패드 미니4	1점
2	강희중	인천-자카르타 대한항공 이코노미 항공권	1매
3	구종율	상품권	5백만 루피아
4	길병완	보스턴백 + 공가방 셋트	3세트
5	김동수	상품권	3백만 루피아
6	김민규	그랜멜리아 호텔 1박 숙박권	1매
7	김병철	상품권	3백만 루피아
8	김성국	갤럭시 S7 Edge	1점
9	김송정	상품권	3백만 루피아
10	김영주	상품권	2백만 루피아
11	김우재	상품권	1천만 루피아
12	김우진	갤럭시 S7 Edge	1점
13	김육찬	상품권	3백만 루피아
14	김윤자	고급 넥타이	1점
15	김종성	상품권	3백만 루피아
16	김종희	용마밥솥	10개
17	김주철	아이폰 6	1점
18	김준규	갤럭시 S7 Edge	1점
19	김태화	상품권	5백만 루피아
20	노태진	상품권	2백만 루피아
21	마용도	글라스락	120개
22	박병엽	골프 장갑	120장
23	박재한	티셔츠	120장
24	박헌식	주방용품 풀셋트	1세트
25	방진학	냉장고	1점
26	배도운	상품권	3백만 루피아
27	배상경	몽블랑 만년필	1점
28	배응식	상품권	5백만 루피아
29	서태수	상품권	3백만 루피아
30	송창근	인천-자카르타 비즈니스 항공권	1매
31	승은호	인천-자카르타 비즈니스 항공 티켓	1매
32	승진아	인천-자카르타 이코노미 항공권	1매
33	신규태	상품권	3백만 루피아
34	신기엽	갤럭시 탭 S2	1점
35	안윤근	상품권	5백만 루피아
36	양영연	인천-자카르타 대한항공 비즈니스 항공권	1매
37		도자기 거울	1점
38	양태화	쇼핑백	300장
39	윤주경	상품권	1천만 루피아
40	이세호	상품권	3백만 루피아
41	이승민	장 퍼터	1점
42	이옥찬	상품권	3백만 루피아
43	이진수	상품권	2백만 루피아
44	이진호	상품권	2백만 루피아
45	이현상	골프 보스턴 백	1점
46	이호덕	갤럭시 탭	1점
47	이화수	상품권	3백만 루피아
48	임성필	상품권	2백만 루피아
49	전민식	갤럭시 탭	1점
50	정용완	갤럭시 S7 Edge	1점

번호	성명	찬조품	수량
51	조규철	갤럭시 S7 Edge	1점
52	조태영	고급 도자기	1점
53	조현보	골프 공가방+ 골프 옷가방	120개
54	최석일	Driving Range 스크린 골프 회원권 및 이용권	2매
55	최태진	상품권	1백만 루피아
56	한현봉	헤비 다운자켓	2점
57	현상범	상품권	2백만 루피아
58	홍기호	대형 인형	5점
59	황의상	갤럭시 S7 Edge	1점
60	민경준	밀폐용기	2점
61	서태원	상품권	2백만 루피아

파라마 아파트 화재 성금 모금 연왕 및 기탁자 명단

8월 29일 현재

번호	구분	성금자	성금액(Rp)
1	태원 인도네시아	양영연	20,000,000
2	재인니한국건설협의회	전민식	10,000,000
3	민주평통 동남아남부협의회	전민식	10,000,000
4	이기욱		10,000,000
5	재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KOCHAM)	송창근	30,000,000
6	PAKUWON GROUP	이윤상	10,000,000
7	YONG WOO INTERNATIONAL	안윤근	10,000,000
8	YEEN DONG SUE	서태수	10,000,000
9	SEPULUH SUMBER ANUGERAH	황의상	20,000,000
10	CIPTA ORION METAL	김준규	10,000,000
11	AURORA WORLD INDONESIA	홍기호	10,000,000
12	DONG JUNG INDONESIA	조규철	10,000,000
13	INDO SUNGIL JAYA	신규태	10,000,000
14	SHINTA WOO SUNG	최덕열	10,000,000
15	WOORI CONSULTING	김민규	10,000,000
16	FEEL BUY INDONESIA	유주완	10,000,000
17	QUTY KARUNIA	김문수	10,000,000
18	DUNIA TIMUR	이태복	2,000,000
19	GEE SAN INDONESIA	이정휴	3,000,000
20	BUSANA PRIMA GLOBAL	박재한	10,000,000
21	열방교회		10,000,000
22	대한체육회 버까시 5인방		10,000,000
23	DONG SON INDUSTRY	손한평	5,000,000
24	한국자유총연맹(KFF)	현상범	5,000,000
총 금액			Rp255,000,000

*송금일 순

파라마 아파트 화재 구호 물품 찬조 연왕 및 기탁자

구분	기탁자	찬조품
무궁화유통	김우재	상품권(2천만 루피아)
		식품(2천만 상당)

[한인회 회비 납부 안내]

개인회비는 가구당 매년 Rp. 30만 로

각 기업, 단체, 협의회, 동호회, 동창회 등의 모임에서
한인회원 모두의 의무인 회비납부를 통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재원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 양영연 배상

<보내실 곳>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BANK KEB HANA INDONESIA	
계좌번호 (루피아)	Rp. A/C NO: 100-913-000-538	Rp. A/C NO: 220-200-5949	Rp. A/C NO: 001-001-100-2049
예금주	ASOSIASI KOREA	YAYASAN ASOSIASI KOREA	

회원이 되신 분(기 납부하신 분 포함)께 회원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구비서류: 여권 혹은 키타스 사본, 사진1매(크기에 상관 없음)

회원증 발급

2016년 8월 한인회 법인 및 임원 찬조금 납부 명단

2016년 8월1일-8월30일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납입 연도	금 액	
					USD	IDR
1	한인회 법인회원	Achmad Baiquni	BANK NEGARA INDONESIA (BNI)	2016		135,000,000
109	한인회 자문위원	김 영 욱	GAYA INDAH KHARISMA	2016		13,200,000
120	한인회 이사	이 철 훈	INDO BOX UTAMA JAYA	2016		13,200,000
121	한인회 부회장	김 우 진	SAMINDO ELECTRONICS	2016	5,000	
총 금액					$5,000	Rp161,400,000

2016년 8월 한인회 개인회비 및 불우이웃돕기성금 납부 명단

2016년 8월 30일 기준(접수순)

번호	성 명	납입연도	금 액(IDR)
129	윤승욱	2016	300,000
130	이철훈	2016	300,000

JAC Recruitment

한국인 취업 안내
JAC는 현지 한국인 취업을 적극 지원합니다. 희망자는 아래 메일로 CV(영어/ 한글) 송부바랍니다.

유능한 현지 인재 채용 … 정말 어려우시죠?

•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재 채용 (중간관리자,마케팅,인사,회계,법률,특수직 및 임원급)
• 회사/사무소 설립, 노동허가(KITAS) 외 각종 인허가, BKPM신청부터 원-스톱 토탈서비스
• 외국기업· 사무소 회계 세무 대행, 단기간 직원파견, 회사설립 전 직원고용계약 대행(EWE)

Korean Desk
Tel: 021- 315-9504, 9506 (영어/인니어)
Mobile: 0878-8042-9794 (한국어)
E-mail: koreandesk.id@jac-recruitment.com
www.jac-recruitment.co.id

본점 : Menara Cakrawala 18 Fl. Jl. MH. Thamrin No. 9 Jakarta / 지점 : Bekasi, Karawang, Surabaya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과	2967 2580
주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	2967 257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1900, 2992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3030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중소기업진흥공단	5292 1302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11708882
국악사랑단체	0811 90 2003
즈빠라한인회	0291 598593
(총무 조영성	0813 90323355)

한인회 비상연락전화 0812 1960 308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벼룩시장	0815 1071 0023
한울	452 5655
여명	9955 5859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JIKS)	844 4958-61
간디국제학교	690 9902
뉴질랜드국제학교 (NZIS)	7884 1226
싱가폴국제학교 (SIS)	7591 4414
(끌라빠가딩)	460 8888
영국국제학교 (BIS)	745 1670
자카르타국제학교 (JIS)	750 3640
북국제학교 (NJIS)	453 1001
호주국제학교 (AIS)	782 1141
일본학교 (JJS)	745 4130
네덜란드국제학교(NIS)	782 3929
독일국제학교(DIS)	537 8080
TAIPEI 국제학교(JITS)	452 3273
SPH (땅그랑)	546 0234
(찌까랑)	897 2786
RICS	7590 3342
헤리티지인터네셔널(HIS)	08129712306
LYCEE Int. FRANCAIS	750 3062
JIPS	3004 2885
JIMS	744 4860
PAKISTANEMBASSYSCHOOL	3904137
ACG 국제학교	780 5636
ICSCE	780 7313
익투스크리스천국제학교	7590 8820/50

유치원

KIDS Island	765 6588
Bambino (위자야)	720 3356
(빠뜨라 꾸닝안)	8378 3783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스쿨(자카르타)	750 0739
(끌라빠가딩)	471 8047
(땅그랑)	558 7227

골프장

BOGOR RAYA	0251)827 1888
CENKARENG	5591 1111
CILANGKAP	8459 5687
CIKAMPEK	0264)317 007
DAMAI INDAH [BSD]	537 0290
EMERALDA	875 9019

MATAARI
TOUR & TRAVEL
마타아리 여행사
소장 정 연 승
T. 521 2212 H. 081 888 5353
E. yunisarah@naver.com

LIVING A&I
ARCHITECTURE & INTERIOR
人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GADING RAYA	546 7668
GUNUNG GEULIS	0251)825 7500
HALIM 1	800 5762
HALIM 2	809 0729
IMPERIAL	546 0120
JABABEKA	893 6148
JAGORAWI	875 3810
KAPUK	588 2388
KARAWANG	0267)405 888
KEDATON	5930 0000
KEMAYORAN	654 1156
KRAKATAU	0254)372 030
LIDO	0251)822 1008
MATOA	787 0864
MODERN	552 9228
PALM HILL	8795 4307
PANGKALAN JATI	751 3326
PERMATA SENTUL	8795 1787
PONDOK CABE	740 5385
PONDOK INDAH	769 4906
RAINBOW HILL	0251)827 2111
RANCAMAYA	0251)824 2282
RAWAMANGUN	475 4732
ROVER SIDE	867 1533
ROYAL JAKARTA	8088 4488
SAWANGAN BARU	740 2194
SEDANA	0267)644 730
SENTUL HIGHLAND	8796 0266
TAKARA	599 1227

•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392 17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 골프샵

교민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골프샵	546 0838
레네세계골프	739 8312
한양(꼴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플레이골프	344 2540
MFS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동문회

• 중/고교

강경상고(민병무)	0818 879 149
경기고(구본찬)	780 0204
경남공고(이봉규)	0812 902 3800
경남중고(정낙현)	0813 8293 8557
경동고(강성원)	0812 8830 8566
경복고(노경인)	0815 1901 0575
경북고(이병수)	0816 181 3615
경성고(박영권)	0813 8805 1296
경신고(김진태)	7883 6372
경주중고(김홍규)	0818 141 635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0815 1428 9329
계성고(최상록)	0811 249 038
광주고(선홍규)	0813 1536 5223
광주 사례시오중고	548 5112
광주 서중일고(이용하)	527 0150
광주 금호고	0815 1903 5802
남성중고(임석균)	515 9277
대구고(김현철)	0818 718 535
대구대륜고(노태진)	0816 835 185
대구 상고(김진우)	825 0581
대구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대광중고(이민규)	0816 880 018
대원외고(권기훈)	0877 7779 4668
대전고(윤내선)	426 2954
덕수상고(정천수)	0816 114 7364
동대문상고(곽기석)	867 3837
동래고(박형남)	0815 1906 0877
동성고(홍창형)	0812 102 2670
동아고(여병철)	0811 187 554
동인고(차명훈)	0815 950 0461
마상고(김만수)	0811 122 5239
목포중고(김용진)	568 0517

▷▷▷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배재학당(이성수) 0815 1428 0295
배정고(김상훈) 0817 659 9473
보성고(김유호) 5940 1282
보성교우회(박지배) 0811 976 537
부산기고(채윤규) 026 751 2483
부산 동고(이동훈) 0811 190 7967
부산상고(박갑수) 0812 952 5404
부산 중앙고(송명석) 0811 834 412
부산고(조명국) 0811 1046255
부산 외고(선진세) 0813 8536 8434
서울고(신균) 0811 157 450
서울 대신고(서영석) 0813 1139 7145
선린상고(김기석) 0817 648 9321
성남고(성기채) 0815 1070 2424
성동고(구본욱) 025 161 1466
성원고(강변창) 0811 891 458
수원 유신고(안성욱) 0813 1626 7777
순천 중고(김정욱) 0815 1932 9650
숭문고(김영언) 0816 937 269
신일고(금민철) 0816 864 677
심인고(김종필) 0815 1305 4150
안양공고(조한영) 0812 859 8483
양정고(이종환) 0815 1033 1001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등포고(정하승) 0811 140 334
오산고(조동혁) 0815 7432 7769
용산고(박승래) 0813 1842 1269
유한공고(이선용) 0812 071 210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0818 912 698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전주고(남택열) 0811 877 108
정석항공고(백승엽) 0811 903 144
중동고(최무종) 0811 8532 0354
중앙고(정재익) 0811 910 013
진주 대아고(김영진) 5522 0041
청주고(조영선) 0815 1901 4477
충남고(이수현) 0811 175 126
한성고(박창화) 0816 780 751
혜광고(서동히) 0813 9839 9286
휘문고(맹중호) 0818 973 986

• 대학교

강원대(송영석) 0812 1326 5977
건국대(조선용) 0811 910 6707
경기대(인기상) 739 7625
경북대(김규식) 0816 182 3748
경희대(양승민) 0811 164 367
계명대(백성영) 871 2371
고려대(이광수) 0813 8026 1353
공군사관후보생(김기정) 0817 918 7100
부경대(이제원) 0812 968 9797
동국대(염정윤) 0817 681 8599
동아대(서종군) 0811 850 212
목포해양대(이종재) 08111 975 205
부산대(유제상) 0811 841 510
부산외대(이동훈) 0816 781 564
서강대(이철우) 08121177399
서울대(정무웅) 797 5959
성균관대(김진태) 0818 953 949
숙명여대(서영자) 0815 1324 2799
숭실대(김학수) 0811 879 701
아주대(서보상) 0815 1902 4220
연세대(금민철) 0816 864 677
영남대(김상수) 0812 103 8707
영산대(최재혁) 590 0401
울산대(최재호) 723 0917
이화여대(김미송) 0811 122 0566
인하대(이기홍) 0816 812 507
전남대(최병욱) 0816 188 1233
전북대(최성호) 0815 7232 3689
중앙대(손동근) 0811 844 247
충남대(노제익) 452 6968
충북대(최병인) 0817 778 857
한국외대(신성철) 0818 936 943
한국해양대(이승준) 0811 190 7718
한양대(임영석) 0811 944 338
ROTC(인니지회사무국장한규성) 0818 890 571

• 은행

수출입은행 525 7261
외환은행 574 1030
우리은행 2996 1915
하나은행 522 0222~3
신한은행 2253 1401

• 종교 단체

<기독교>

꿈이있는교회 548 3044
늘푸른교회 766 9191
동부교회 4587 7317
연합교회 7279 5625
예사랑침례교회 4176 5140
소망교회 739 6487
순복음교회 739 2373
안디옥교회 751 5525
열린교회 844 5537
위자야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사랑의교회 450 7324
주님의교회 831 3843
중앙감리교회 533 2749
찌까랑임마누엘교회 8990 3133
참빛교회 718 3535
한마음교회 739 5035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가구

죠지언 퍼니쳐	766 0364
아이니갤러리	581 4690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 7662
경동건강원	7028 4262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부아메라	0816 1854 58
한국건강원	5579 6411
황소건강원	5576 7628
진영삼붕냐와	8234 565
솔진생코리아	7278 8287
클로렐라	470 4280
이롬황성주생식	5296 1522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건설 / 설비 전기

DASOM indonesia	2940 3042/5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난 이야기	0812 913 1355
에셀꽃집	0816 733 810

•기타

바틱하우스	0816 770 143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11 85 3156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끌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 2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 119 3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미용실/피부관리

겔러리 J	725 2856
국제이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퀸덤	7279 2067~8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쟈르헤어	7279 6998
Salon & Beauty Shop	7278 6969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법무법인 인도양	527 3077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병원

관준한의원	722 7745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메디칼 크리닉	799 1333
신농씨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Matahari Klinik	722 6391
Dokter Korea	0815 8539 7777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끌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찌까랑)	7075 2214
무궁화(다르마왕사)	723 3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끌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2016년 한인 문예총

<회장단&집행부>

사공경 회장	0816 1909 976
강희중 고문	0816 798 221
이일하 부회장/기획/ 음협 회장	0811 9103 108
신돈철 부회장/전시/ 미협회장	0878 5480 4815
박형동 부회장/공연/ 한바패회장	0811 149 586
이수진 부회장겸 사무국장/ 헤리티지회장	0816 1300 210
채영애 감사/아르떼 여성합창단 단장	0816 745 384
허민경 사무차장/ 스트링 오케스트라 단장	0812 1316 2064

<협력단체장>

서예협회장 : 양승식	0811 111 363
루시플라워 회장 : 최정순	0811 834 026
미술협회 회장 : 신돈철	0878 5480 4815
문인협회 회장 : 서미숙	0812 8178 050
한바패 회장 : 박형동	0811 149 586
어린이합창단 지휘자 : 안영수	0811 9005 639
색소폰동호회 회장 : 박의태	0811 876 547
헤리티지(코리안) 회장 : 이수진	0816 1300 210
국악사랑 회장 : 장방식	0811 902 003
월화차 회장 : 이춘순	0878 8333 3359
음악협회 회장 : 이일하	0811 9103 108
아버지앙상블단장 : 변영극	0815 9101 898
아르떼 여성합창단장 : 채영애	0816 745 384
스트링 오케스트라 단장 : 허민경	0812 1316 2064

<촉탁전문위원>

* 안선근 : 현지단체교류	0816 883 223
* 최석일 : 문화컨텐츠	0818 901 609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2277 5526
위자야마트	726 9049

●식당

하나	0254-393 2146
가나	558 2214
가야성	725 7373
가효	5289 7044
강남	0812 2323 5119
강남스타일	2952 8443
고주몽	7279 6709
고주몽	8984 1000
김균 고기고기	726 4999
김삿갓	722 2230
대가	8459 2871
대감집	720 7530
대화	720 6091
락	5793 9211
마포	7279 2479
맛집칼국수	0821 1096 3483
명가면옥	0254-849 3571
면의전설	521 0230
명가면옥	2751 0800
미가	0818 85 8026
미스터 박	5140 1142
버까시 서울	8895 7604
베다니1호점	9318 0458
베이징	0254-837 0242
보신명가	789 0220
보신명가	0254-848 4111
본가	739 6229
삼원가든	2988 9505
설악추어탕	722 1852
소래포구	8990 5051
씨티서울	5289 7506
아랑22	5140 1245
아리정	739 6549
우장군	725 6181
유미	720 7464
청기와	726 1924
청담가든	0815 7342 5802
청해수산	527 8721
취연	725 1276
토박	725 1135
하누	725 5042
한강	7278 7802
한민족	725 2688
한솔	5290 3417
이가네	6669 5500
한옥	0254-385 588
강산	2452 0569
깜닭	4584 5837
다미	4585 0040
대장금	0816 885 956
마포갈매기	0812 9313 9503
명가면옥	8990 4552
미스터 사시미	4585 3484
미추홀	6583 1472
서울	4585 4454
설악추어탕	2937 5435
송가네삼계탕	4585 4422
야래향	4584 8476
황금밥상	4585 3402
감미옥	5579 4612
강나루	5576 8222
강촌	5579 3681
꼬꼬따리아	0254-39 4255
대가야	547 5511
명가면옥	552 2745
산들	5579 5821
상하이	5573 5550
서울일식	546 0840
아리수	0254-781 0059
알리사	0254-60 1430
오리랑장어랑	5577 6457
우리들	552 4047
조선민물장어	5573 3308
종가레스토랑	551 3273
청기와	0858 1377 3388
체어맨	5577 8585
태능갈비	7055 0888
테라스 가든	8493 9321
한마당	5577 6770

●신문

한국신문 종합대리점	520 7207
데일리코리아	725 7447
조선일보	5290 7388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인포스트 4586 9199
일요신문 452 5655
타임인도네시아 5028 4996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신문 5290 0117

●안경원
눈사랑안경원 723 5360
시티안경원 726 5009

●여행사
나래여행 5296 0749
하나족자트래블 0274 887 488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투어 391 1381
우리투어 0811 980 5009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532 7970
Inko Batam(바땀) 0778 462 500
사랑투어 3192 4449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인터넷
HANASTAR INTERNET 2270 8282
S-Net 7080 7886

●인테리어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7590 676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720 4851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INNOMATE 7919 2006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센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5591 5770
페나스콥 로지스틱스 2902 3838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84 155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증권/보험
삼성화재 021 806 22000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6242
키움증권 526 1326
KDB 대우증권 515 1140
KB손해보험 3199 0247
한화생명 727 88150

●컨설팅
럭키비자 0813 1133 2122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누비라컨설팅(리뽀찌까랑) 8990 0088
두왕컨설팅 520 7153
새천년컨설팅 5290 0040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퓨릭컨설팅 5596 3213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인력은행
JAC Recruitment 315 9504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0811 888 9609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하숙
경복궁하숙(리뽀찌까랑) 081314157581
가딩 홈스테이 9661 5877
간다리아게스트하우스 0858 1442 2900
갈릴리 게스트하우스 0858 1341 3222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0813 1514 9978
교민 하숙 0816 163 5558
나인비즈니스 하숙 9940 5005
둥지 하숙 3608 9316
리뽀찌까랑 하숙 0812 1066 7757
레져 게스트하우스 0811 143 437
모나리자 8990 9570
모이하숙 0878 8515 1653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0813 8059 1625
세명 하숙 0852 1757 5525
세노파티코리안 하우스 0821 1336 1111
소망 하숙 0813 1724 9911
쉼터 하숙 726 8775
시내중심 게스트하우스 0815 1780 3680
이모네 하숙 0818 964 946
인다 게스트하우스 0822 6074 8228
엘지 게스트하우스 0812 100 7135
엘림 게스트하우스 0815 181 3122
위자야게스트하우스 0815 1024 8888
자카르타 게스트하우스 0817 127 887
풀하우스 게스트하우스 0811 888 9609
한밭 830 9990

한울타리	739 5841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723 8302
현대 하숙	0818 795 787
한마음 게스트하우스	0813 8822 7783
BSD등불 하숙	0852 1985 1523
힐링 게스트하우스	0821 1427 5415

• 학원/교육업

대교인도네시아	5292 0911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아카데미	08119103108
박학천논술	4586 7844
뽄독인다아카데미	7590 5773
에쎄드라아트스쿨(리뽀까라와찌)	546 4531
예원	720 8783
케이에듀인 한국어/유학원	2942 7062
종로학원	7883 5202
토마토미술	723 3699
	0817 9876 950
피카소어린이미술학원	0813 989 22222
하이스트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공항)	550 23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 (시내)	572 1381~3
(공항지점)	5591 3229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샹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운플라자	526 8833
술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자바 팔레스	2928 1111

•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끌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 51158

▷▷▷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

최 병우	0811-956-227	회장
강 희중	0816-798-221	검도협회장
곽 봉규	0815-410-4167	탁구협회장
김 송정	0816-716-293	볼링협회장
김 태화	0811-188-2938	스쿼시협회장
방 진학	0811-198-282	태권도협회장
배 응식	0811-965-2775	용무도협회장
이 광희	0811-998-186	축구협회장
정 성원	0817-785-348	테니스협회장
한 현봉	0811-111-5800	골프협회장
이 기홍	0819-812-507	사무총장
성기채	0815-1070-2424	사무차장

환전 712 8556

발 리 (지역번호 0361)

●한인단체
재발리한인회 0812 3793 9452

●항공
대한항공(KAL) 768 377

●종교단체
한인교회 462 222

●슈퍼마켓
한국슈퍼마켓 281 929

●여행사
B.J.C TOUR 284 365
BALI INDA TOUR 286 905
BALI DAMAI TOUR 764 864
BALI HARMONY TOUR(A) 744 1815
BALI STAR TOUR 868 8287
BALI TAP TOUR 860 4977
MANGOCAKE 745 4229
FIN DONGHWA TOUR 847 1966
DREMLAND TOUR 745 1961
DARMA BALI TOUR 848 0030
KOURUS TOUR 744 7200
M. TOUR MAIL 725 800
NUSA TOUR 285 122
ITOUR 261 105
MATAHARI KOREAN TOUR 703 479
MARIN TOUR 224 010
PD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TOUR 288 999
U2 Bali Holiday TOUR 710 731
T.N.B TOUR 808 9000
UNION TOUR 745 4419
SUDINA TOUR 744 2121
SPIRIT TOUR 780 2340
KOREA TRAVER 756 899
V.I.P. 여행사 762 090
WORLD RESORT CENTER 778 218
WEDDING TOUR 745 3650

●식당
그릴하우스 (0361) 710 374
꼬끼레스토랑 770 256
대장금(SIMPANG SIUR) 889 0870
대장금(SANUR) 918 1888
라리스 727 405
부가 805 1212
서울가든(부두굴) (0362) 342 9220
한일관 727 250
인터내셔날라운지 759 368

●서비스업
- 빌라, 호텔

BEVERLY HILLS VILLA 848 1800
BALI DIARY HOTEL 499 282
DREAM LAND VILLA 708 199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MAN&WOMAN VILLA 847 6521
LAVENDER HOTEL 752 961
VILLA DOWNTOWN 736 464
VILLA NAMASTE 755 755
AISIS VILLA 862 8777

●기타서비스업
I.N.L 720 999
INKO CLUB 722 431
HALLO BALI 723 593
SIMPANG SIUR 761 313
AVENUE 762 327
AISIS (NUSADUA) 770 256
AISIS (SANUR) 287 257
COLAGEN BUTY SHOP 885 1770
CLUBBER 766 340
BALI FINE 852 8881
POLO SHOP(AIRPORT) 759 368
BALI TEGEHE AGUNG 298 643
CLEAN & GREEN 289 070
SUN JEWELLERY 761 537
SINAR MUTIARA BALI 462 061
BALI DEWATA 285 501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SAMMA 815 310
BALI PROPERTY CONSULTING 264 086
SHINY HAIRSHOP 766 304
카리스(특피전문백) 0811 998 1637

반둥 (지역번호 022)

반둥 아름다운교회 201 3184
0813 2233 0119
반둥 반석교회 201 5022
한국인교회 201 4052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안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둥렌트카 0858-1111-4000
반둥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둥컴닥터 0821-2222-6000

긴급전화번호

경찰	POLICE (Polisi)	112
범죄및도난신고		110
소방서 (화재신고)	FIRE BRIGADE (Dinas kebakaran)	113
응급차	AMBULANCE (Ambulan)	118 119
민간구급차 서비스	PRIVATE AMBULANCE SERVICES	(021)7506001 =International SOS (24시간대기)

■전화번호 안내

시내.....108
Directory Service(City)

시외.....105,100
Directory Service(Suburbs)

국제전화.....001,008

■교통기관

수카르노하따공항안내.....021)5505307/8/9
Airport Information 550 5179

택시예약(블루버드클럽).....021)7917 1234
(24시간 접수)

고속도로 정보.....801
Toll Road

교통사고.....118, 021)527 5090
Traffic Accidents

열차시간안내.....121
Station Gambir
Station Kota.....021)692 8515

■재인도네시아 한국인관련 주요기관

한국대사관.....021)2967 2555

영사과.....021)2967 2580

재인도네시아 한인회.....021)521 2515

한인회 24시간 비상연락....0812 1960 308

■항공사 안내

대한항공(시내).....021)521 2180
(공항).....021)550 2389
가루다(Call Center).....021)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 항공(시내).....021)5721 381~3
(공항).....021)5591 3229

■우편

중앙자카르타 우체국.....021)384 4188

■각종 고장 문의

전기고장 문의.....123
전화고장 문의.....147
수도고장 문의.....021)579865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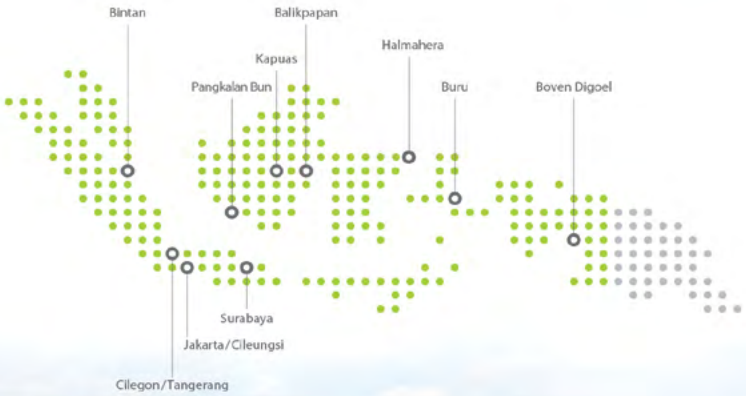
지역 한인회 주소록

2016년

번호	지역	직위	성명	휴대폰
1	발리	회장	안 복 희	0813-3808-6990
		부회장	편 성 호	0812-389-0694
		부회장	윤 경 희	0811-385-841
		수석 총무	최 경 희	
		총무	송 학 자	0812-362-3000
		총무	손 민 석	0858-5732-0669
2	반둥	회장	엄 정 호	0812-201-8309
		수석 부회장		현재 공석
		사무 국장	남 상 일	0812-2400-0303
3	케프리주 바탐	회장	공 자 영	0811-691-826
		수석 부회장	주 정 만	0812-704-5030
		사무 국장	정 규 철	0812-701-6090
		총무	이 상 구	0821-7356-8405
4	보고르	회장	이 철 훈	0811-112-179
		총무	임 성 필	0819-707-107
5	메단	회장	홍 상 철	0811-160-8724
		총무	손 근 환	0812-655-9418
6	수까부미	회장	김 흥 기	0811-111-5208
		부회장		현재 공석
7	동부자바 (수라바야)	회장	배 춘 식	0811-332-4001
		수석 부회장	이 경 윤	0817-321-833
		사무 총장	김 태 현	0818-321-332
		수석 총무	정 상 원	0812-3373-8798
		총무	박 한 진	0813-5274-8703
		총무	배 기 보	0812-3251-5518
8	중부자바 (스마랑)	회장	김 소 웅	0811-278-8909
		사무 국장	채 환	0822-2021-5725
		사무 총무	이 승 현	0811-978-0282
9	족자카르타	회장	박 병 엽	0821-3352-6380
		총무	조 용 재	0815-4880-0256
10	즈파라	회장	박 상 규	0812-2523-7001
		수석 총무	조 영 성	0813-9032-3355
		총무	양 세 환	0822-2719-9135
11	땅그랑 반뜬	회장	오 세 명	0816-187-8582
		간사	허 미 숙	0818-660-732
12	마카사르 술라웨시	회장	이 재 호	0811-444-190
		총무	한 정 곤	0811-419-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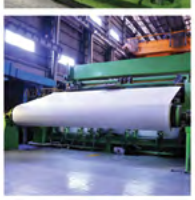
Green Tomorr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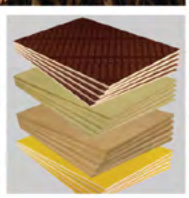
KORINDO P1ants the Green



인류의 지속가능성, 녹색경영에서 해법을 찾다!

코린도의 주력사업인 천연림경영, 조림, 팜오일, 목가공사업 등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친환경사업을 통해
지구와 인류를 위한 지속 가능의 해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Forestry Management
Timber Plantation
Oil Palm Plantation
Rubber Plantation
Plywood
Plant
Special Vehicle
Battery Separator
Coal & Limestone Mining
Finance

Total Logistics
Shipping Division
Engineering & Construction
International Business Div.
Real Estate Management
Rest area & Gas station
SG Consulting
Wind Tower
Newsprint & Printing / Writing Paper
Wood Chip/ Veneer/ Sawn Timber/ Wood Pellet

KORINDO
KORINDO GROUP
WISMA KORINDO JL. M.T. HARYONO KAV.62 JAKARTA 12780, INDONESIA
T +62-21-797-5959 F +62-21-797-6401 www.korindo.co.id

No.1
RETAILER IN ASIA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는 글로벌 유통기업, **롯데마트**
인도네시아에서도 롯데마트는 대한민국 유통의 자부심이 되겠습니다.

HYPERMARKET (14 STORES)

JAKARTA: • Gandaria City (021) 29053060 • Ratu Plaza (021) 7394555 • Kelapa Gading (021) 45855111 • Mal Kuningan City (021) 304808888 • Fatmawati (021) 7591 0837 • LOTTE Mall Taman Surya (021) 29501300 | TANGERANG: LOTTE Mall Bintaro (021) 29310777 | CIMONE: Cimone City Mall (021) 29170235 | BEKASI: Mal Bekasi Junction (021) 88348885/88344681 | BANDUNG: Mal FestivalCityLink (022) 6128 500 | MAKASSAR: Mal Panakkukang (0411) 423445 | MEDAN: Mal Centre Point (061) 80501303 | SOLO: Mal The Park (0271) 7891250 | SURABAYA: Marvel City (031) 99440510

WHOLESALE (27 STORES)

JAKARTA: • Pasar Rebo (021) 8404090 • Kelapa Gading (021) 4523811 • Meruya (021) 5857101 | BEKASI: Bekasi (021) 82428818 • Cibitung (021) 8980678 • Cikarang (021) 89101018 | TANGERANG: • Alam Sutera (021) 5399660-61 • Ciputat (021) 74700140 • Jatake (021) 29329950 | SERANG (0254) 8241945 | BOGOR (0251) 7564700 | BANDUNG (022) 7503570 | CIREBON (0231) 8333024 | TASIKMALAYA (0265) 7293333 | SEMARANG (024) 6733535 | SOLO (0271) 740319 | YOGYAKARTA (0274) 4462616 | SURABAYA: • Mastrip (0821) 32537174 • Sidoarjo (031) 8532244 | BALI (0361) 723222 | MEDAN (061) 8470010 | PEKANBARU (0761) 572215 PALEMBANG (0711) 379623 | BANJARMASIN (0511) 3265450 | BALIKPAPAN (0542) 8879523 | MAKASSAR (0411) 832813 | BATAM (0778) 4803800

SUPERMARKET (2 STORES)

JAKARTA: La Codefin Kemang (021) 7182889 | BANDUNG: Bandung Electronic Center (022) 20510044

@lottemartindonesia | www.lottemart.co.id

LOTTE Mart